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2021. 11월

Vol. 21

ISSN 2713-9387

# 모음

문화 부문의 지식재산권 이슈와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논의



— 1971~2021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문화체육관광부

 Kocis 해외문화홍보원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KOFICE

## I 세계는 지금 | 정책 동향

- 4 1. 문화예술 :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스웨덴, 나이지리아, UAE, 스페인, 호주, 중국, 벨기에, 독일, 아르헨티나, 영국, 캐나다
- 12 2. 문화산업 : 일본, UAE, 필리핀, 카자흐스탄, 태국, 미국, 인도네시아, 스웨덴, 독일, 아르헨티나, 영국, 중국
- 23 3. 체육 : 카자흐스탄, 폴란드, 나이지리아, 필리핀, 일본, 호주, 벨기에, 인도네시아, 태국
- 26 4. 관광 : 러시아, 프랑스, 필리핀, 일본, 호주, 벨기에, 인도네시아, 캐나다, 베트남, 남아공, 아르헨티나, 중국, 싱가포르, 태국

## II 세계는 지금 | 이슈 동향

- 34 1. 아프리카 대륙에 신한류를 알릴 또 하나의 등불 켜지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세계 33번째 한국문화원 개원
- 37 2. 코로나19 이후, 예술기관들의 운영 재개를 위한 방역 지침과 실행전략
- 42 3. 창의 유럽 프로그램 2021-2027

## III 이달의 담론 : 문화 부문의 지식재산권 이슈와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논의

## IV What's on KCC abroad | 재외한국문화원 11월 활동계획

# I

## 세계는 지금 [정책 동향]

1. 문화예술 :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스웨덴, 나이지리아, UAE, 스페인, 호주, 중국, 벨기에, 독일, 아르헨티나, 영국, 캐나다
2. 문화산업 : 일본, UAE, 필리핀, 카자흐스탄, 태국, 미국, 인도네시아, 스웨덴, 독일, 아르헨티나, 영국, 중국
3. 체육 : 카자흐스탄, 폴란드, 나이지리아, 필리핀, 일본, 호주, 벨기에, 인도네시아, 태국
4. 관광 : 러시아, 프랑스, 필리핀, 일본, 호주, 벨기에, 인도네시아, 캐나다, 베트남, 남아공, 아르헨티나, 중국, 싱가포르, 태국

# 1. 문화예술

## 단계적 일상 회복, 문화예술계의 재개를 위한 변화들

### 일본

#### 예술업계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계약서 지침 제도 추진

일본 문화청은 예술업계 종사자들의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서 체결 지침 제도를 마련했다. 음악·미술계의 개인 사업자인 경우, 코로나19로 활동이 중단되어 지원금 수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지원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보고되자 일본 문화청은 예술계, 학계, 법률 전문가가 참여해 계약 기본 사항을 포함한 지침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문화청은 2020년도에 예술 분야의 개인 사업자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 체결 시 가장 많이 겪는 경험은 '문서 교환없이 메일 교환만 있는 경우'(46.8%)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문서 교환없이, 전화·대면에서 구두 진행'(16.0%) 순이었다. 즉, 답변자의 60% 이상이 업무상 계약 내용을 서면없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처와의 관계에서는 '낮은 보수 등의 불리한 조건 수락 요구'(13.3%), '보수 미지불 또는 일방적인 감액'(6.6%)과 같은 답변도 있었다.

(출처 : 산케이신문, 2021.09.16.)

### 미국

#### '콜럼버스의 날'에서 '아메리칸 원주민 역사 기념의 날'로 공식 선언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0월 역사상 최초로 '콜럼버스의 날'을 '아메리칸 원주민의 날'로 공식 선언했다. 과거 '콜럼버스의 날'은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하고 미국의 국가 건설의 초석을 마련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유럽이 미 대륙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의 희생이 있었던 만큼 미국의 많은 주(States)들은 공식적으로 '원주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왔다.

알래스카, 하와이, 네브라스카 등의 8개 주는 '콜럼버스의 날'을 '아메리칸 원주민의 날'로 변경했다. 이어서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미시건 등의 11개 주는 선언문을 통해 공식으로 변경 명칭을 인정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 중 하나인 아메리칸 원주민 박물관도 '아메리칸 원주민의 날'을 맞이해 흑인 미 원주민을 재조명하는 온라인 패널 강의를 개최했다.

(출처 : CNN, 2021.10.08. / 미 연방정부, 2021.10.08. / wtop, 2021.10.11.)

## LA카운티미술관에 한국 미술품 1,000점 기증

한국 미술계의 대가 이중섭과 박수근의 작품과 조선시대의 고(古) 미술품이 LA카운티미술관(LACMA)에 상설 전시된다. 체스터 장 박사는 LA 지역사회의 한인 이민자(Old-Timer)로 평생 수집한 한국 미술품 1,000여 점을 LACMA에 기증했으며, 기증된 한국 미술품의 규모는 미국 내 미술관 중 최대이다.

(출처 : koreadaily, 2021.10.13.)

## 첫 대면 공연으로 LA필하모닉 재개

LA필하모닉이 지난 10월 <홈커밍 : 콘서트 앤 갈라>행사로 첫 대면 공연을 재개했다. 이날 콘서트가 끝난 후, 450명 이상의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 모집을 위한 갈라 공연이 열렸다. 코로나19로 재정 난을 겪은 LA필하모닉은 이번 첫 대면 공연을 통해 운영 기금과 '청소년 오케스트라 LA(YOLA)'후원금으로 300만 달러(약 36억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

(출처 : koreatimes, 2021.10.11.)

## 인도네시아 '국가인재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 분야의 인재 양성 강화 추진

모엘도코(Moeldoko)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도네시아에 외국문화가 많이 유입돼 인도네시아 문화가 국제화되어 가고 있다며, '국가인재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인의 잠재성을 개발하고 국제적 수준의 작품 창작을 위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접견 장소에 참석한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인도네시아 예술인 활동이 매우 저조했으며, 문화예술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출처 : ANTARANEWS, 2021.10.05.)

## 예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요구

헤르디아니(Een Herdiani) 인도네시아 문화예술연구소(ISBI) 대표이자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문화교육부의 예술인 지원정책이 미흡했다고 평가하며, 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헤르디아니 교수는 "문화교육부가 국가문화주간(PKN)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으나, 예술인의 재정난은 해결되지 않았고 파푸아에서 개최했던 전국체전(PON)처럼 단순한 볼거리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문화주간 행사와 예술인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국가문화주간 행사 : 참여 예술가의 선정 절차 불투명, 작품 규모에 따른 참여 제한
- 예술인 지원사업 : 예술단체(1,000만 루피아~2,000만 루피아, 약 2억 원 ~3억 원)와 개인(300만 루피아, 4,716만 원)
- 한계점 : 예술인의 정보 수집과 관리가 원활하지 않아 인도네시아 내 모든 예술인에게 재정지원 한계

(출처 : Antaranews, 2021.09.17.)

## 스웨덴

### 문화예술 부문에 13억 크로나(약 1,772억 원)추가 지원금 결정

아만다 린드(Amanda Lind) 스웨덴 문화부 장관은 2022년 문화예술 부문의 예산에 13억 크로나(약 1,772억 원), 체육 부문에 400만 크로나(약 5억 4,532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추가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을 문화 부문에 추가 편성한 이유는 스웨덴 문화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침체로 문화예술계가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공연예술 배우에게는 5,000만 크로나(약 68억 원), 스칸센(Skanssen) 재건 비용에는 1,500만 크로나(약 21억 원), 스웨덴 박물관의 디지털화 작업에는 2,000만 크로나(약 27억 원)가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출처 : SVT, 2021.09.14.)

### 문화생활 재개에 39억 크로나(약 5,316억 원) 투자 계획

스웨덴 정부는 문화생활 재개를 위해 향후 2년간(2022-2024년) 39억 크로나(약 5,316억 원) 상당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투자 항목은 공연예술계 배우에 4억 5,000만 크로나(약 613억 원), 문화협력 강화에 2억 크로나(약 273억 원), 영화배우에 1억 크로나(약 136억 원)상당의 지원금을 편성했다.

(출처 : DN, 2021.09.30.)

### 문화 재개를 위한 '문화 수표'지원 사업 추진

스웨덴 정부는 18세 이상의 스웨덴 국민을 대상으로 150 크로나(약 2만 원) 상당의 '문화 수표'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스웨덴 문화 재개를 위한 스웨덴 국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5억 8,500만 크로나(약 797억 원) 재정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 '문화 수표' 지원사업의 본 취지는 문화 생활의 재개로 민간·공공 영역의 문화 행사에서 사용가능하다. 반면, 문화계에서는 문화 수표 지원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칼레 나단손(Calle Nathanson) 문화행사 업계 대표자는 "문화 재개를 위해 따로 편성된 예산은 문화 부문의 조직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출처 : SVT, 2021.09.30.)

## 10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지침 해제로 문화행사 전면 재개

스웨덴 정부는 지난 9월에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문화예술계는 제한 인원 규정에 따르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문화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스웨덴 문화부는 문화행사 참여 시 PCR 증명서와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할 필요는 없으나, 감염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백신 여권제를 시행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레나 할렌그렌(Lena Hallengren) 스웨덴 사회부 장관은 “코로나19 제한 완화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거리를 유지하고 주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SVT, 2021.09.23.)

## 나이지리아 **요루바족 언어와 문화 보존 정책 추진**

오쿤우시(Oba Adeyeye Ogunwusi) 이페 아라랜드 족장은 요루바(Yoruba) 부족의 언어와 문화 소멸을 우려했다. 이어서 아테미시 세군 라다예(Adebisi Segun Layade) 족장은 고(故) 제레미아 오바페미 아월로우(Jeremiah Obafemi Awolowo)의 삶과 시대에 관한 책 출간회에서 요루바어의 보존 정책은 요루바의 문화를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일상생활에서 영어보다 요루바어의 사용을 권장했다. 세튼지 데이비드(Setinji David) 라고스(Lagos)주 하원 전략안보위원장도 “국가 발전에 있어서 언어가 가진 힘은 중요하다.”며, 요루바어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 Blueprint, 2021.09.17.)

## UAE **'소스(Sauce)' 시리즈 라이브 음악 행사 장기간 개최**

51명의 예술가로 구성된 음악 행사 '소스(Sauce)'는 아부다비 내 41개의 장소에서 4개월 동안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부다비 지역사회와 관광객들에게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지역 음악인들에게는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아부다비 문화관광부는 “이번 4개월간의 특별 프로그램은 아부다비가 세계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엔터테인먼트 중심지로서 홍보될 것”이라며, “아부다비는 장기간 음악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유지하면서,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부다비 문화관광부는 “아부다비가 소스(Sauce)음악 행사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중심지로서 아부다비의 성장과 위상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부다비 정부는 이번 음악행사를 통해 국내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며,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 행사를 관객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아부다비 문화관광부, 2021.09.21.)

## 스페인

### 2022년 문화체육부 예산, 전년 대비 38.4% 증가

스페인 문화체육부의 2022년 예산(안)은 15억 8,900만 유로(약 2조 1,519억 원)이며, 2021년 11억 4,800만 유로(약 1조 5,551억 원) 대비 38.4%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문화 부문의 예산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EU 지원금 3억 5,600만 유로(약 4,823억 원)와 '청년 문화 바우처' 예산 2억 1,000만 유로

(약 2,845억 원) 상당의 신규예산 편성 등으로 분석됐다.

(출처 : El Confidencial, 2021.10.13.)

## 호주

###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를 위한 문화예술계 지원 현황

호주 연방정부는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회복을 위해 재정지원을 결정했다. 호주국립발레단, 국립드라마예술원과 멜번극단 등 각 분야별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 호주국립발레단과 국립드라마예술원 지원 : 650만 호주 달러(약 57억 원)
  - 코로나19로 방역지침으로 인해 호주국립발레단과 국립드라마예술원은 공연과 공연예술 교육과 훈련 등 취소, 예술지속가능성기금 5,000만 호주 달러(약 440억 원) 중 650만 호주 달러(약 57억 원)를 해당 두 기관에 지원
- 호주 지역 영상 촬영 장려 프로그램(Location Incentive Program) 지원 : 630만 호주 달러(약 55억 원)
  - 미국 코미디 시리즈 <영 록(Young Rock)>은 연방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퀸즐랜드주 남동부 지역과 빌리지 로드쇼 스튜디오(Village Roadshow Studios)에서 촬영할 예정, 퀸즐랜드에서 촬영된 '영 록'시리즈 1은 3,380만 호주 달러(약 298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300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
- 멜번극단(Melbourne Theatre Company) 지원 : 500만 호주 달러(약 44억 원)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예술지속가능성기금의 일환으로 공연업계의 운영지속을 위한 재정 지원, 호주 내 공연이 가장 활성화된 빅토리아(VIC)주의 계속되는 이동제한령 조치에 따른 결정

(출처 : 호주 통신도시기반도시예술부, 2021.10.14./호주 통신도시기반도시예술 부, 2021.09.13. 호주 기반시설교통지역개발정보통신부, 2021.10.13.)



## ‘뉴비전 아트 페스티벌(New Vision Arts Festival 2021)’ 개최를 통해 실험적인 종합예술의 장 마련

홍콩 여가문화서비스부는 10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뉴비전 아트 페스티벌 2021’을 개최한다. 본 축제 행사는 음악 협연, 신진 예술가 육성, 신규 작품 거래, 해외 진출 등을 목표로 추진되며, 현대적·실험적 공연예술을 집중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축제의 공연 작품은 홍콩 예술가와 네덜란드 현대무용 제작자의 협업을 통해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국, 노르웨이, 일본 등 해외 예술가들이 무용, 다원예술, 증강현실(VR)을 결합한 작품 등 다양한 장르의 실험적인 작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 홍콩 뉴비전아트페스티벌 공식누리집)

##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의 기준 마련

EU 의회의 문화교육위원회는 인터넷 방송인을 포함 문화예술계 종사자를 위해 사회적 합의 수준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U 의회는 젊은 창작가를 위한 국경 간의 교류 프로그램과 인터넷상에서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작가와 공연배우의 피해사례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U의 문화·창의 부문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30% 이상의 매출 손실을 경험했고, 누적 손실액은 1,990억 유로(약 272조 원) 상당에 달했다. 특히, 음악 분야는 75%, 공연예술 분야는 90%의 매출 손실을 봤다.

EU 의회는 디지털 스트리밍 플랫폼의 무분별한 콘텐츠 이용에 대해서 작가와 작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국가 간에 통용될 수 있는 예술가들을 위한 법적 지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 외에도 EU 의회는 회원국 국경 간의 장벽 제거, 예술 교육의 학위인정과 사회 보장에 대한 행정 요구 사항 등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The Brussels Times, 2021.09.28.)

## 브뤼셀 지역의 문화예술계 종사자를 위한 재정 지원 추진

브뤼셀시 정부는 브뤼셀 내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보조금을 700만 유로(약 95억 원)를 편성했다. 첫 번째 보조금 지급액은 2020년 7월에 500만~1,500만 유로(약 68억 원~205억 원)이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같은 해 10월에 1,000~2,000 유로(약 137만~237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추가 편성됐다. 1년 후,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재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브뤼셀시 정부는 세 번째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보조금은 2021년 기준으로 6개월 동안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으며, 2020년에는 2,554명의 종사자가 재정 지원의 혜택을 받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500 유로(약 612만 원) 상당의 소득 종사자 : 3,000유로(약 407만 원)
- 6,000 유로(약 816만 원) 상당의 소득 종사자 : 2,250 유로(약 306만 원)
- 8,000 유로(약 1,088만 원) 상당의 소득 종사자 : 1,500 유로(약 204만 원)
- 상근 직원 5명 이상인 사업장 : 3,000유로(약 408만 원)

(출처 : La Libre, 2021. 09. 16.)

### 홍수로 손상된 문화재 복구를 위해 3,000만 유로(약 409억 원) 재정지원

독일 연방이사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작센(Sachsen)과 바이에른주(Bayern zugestimmt) 지역에 홍수로 피해를 입은 문화재 복원을 위해 3,000만 유로(약 409억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결정했다. 이는 2021년에만 문화재 복원 조치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 민간 협회, 재단과 비영리 기관의 기록문서를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다.

문화재 복구의 예산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장비와 자재가 포함된 특수 비상용 컨테이너 10개를 구매했으며, 이후 전국적인 재해 복구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독일 연방기록보관소는 지난 7월부터 홍수 피해 지역에서 손상된 기록물 자료를 정리하고 동결 건조해 곰팡이와 같은 피해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출처 : 독일 연방문화미디어부 보도자료, 2021.09.11.)

## 아르헨티나 청년층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분기별 지원금 지급 시행

아르헨티나 문화부는 국민사회복지기금(ANSES)와 공동으로 지역간 문화 혜택의 수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분기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지원금은 청년들(만 18~24세)를 대상으로 5,000 아르헨티나 페소(약 6만 원)를 분기별로 지급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지난 10월부터 아르헨티나 문화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아르헨티나 소재 은행의 앱(App) 또는 선불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청년들이 문화 활동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출처 : 독일 연방문화미디어부 보도자료, 2021.09.11.)

### ‘지역 문화의 활성화 프로젝트’에 재정지원 추진

아르헨티나 문화부는 지역 문화 활성화 프로젝트에 지원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제7회 문화 포인트’ 지원사업 공모는 문화와 예술을 매개체로 문화 연대를 촉진하고, 지역 정체성을 제고하는 등 지역 문화 개발을 위해 추진되었다. 공모 당선 지원금은 최대 50만 아르헨티나 페소(약 590만 원)이다.

(출처 : 아르헨티나 문화부)

## 영국

###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문화도시 선정 프로젝트 추진

브래드 포드(Bradford), 콘월(Cornwall), 더비(Derby) 등의 8개 지역이 '2025년 영국문화도시'의 후보 도시로 선정되었다. 코번트리(Coventry)의 뒤를 이을 우수 도시는 2022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후보 명단에 오른 도시들은 처음으로 4만 파운드(약 6,455만 원) 상당의 투자를 받는다. 도리스(Dorries) 영국 문화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문화도시 선정은 그 도시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등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문화도시 선정의 취지는 영국 전역의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번 문화도시 선정에는 20여 개의 지역이 지원했고, 자문위원회에서 8개 도시의 후보로 간추려졌다.

(출처 : bbc, 2021.10.08.)

## 캐나다

### 원주민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대면 축제 행사 추진

'이메진네이티브 영화·미디어아트 축제(imagineNATIVE Film+Media Arts Festival)'는 지난 10월 캐나다 전역에서 대면 행사로 개최됐다. 본 축제 행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주민의 미디어아트<sup>2</sup> 행사로 원주민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소개하고 기념하는 자리이다. 본 축제 개최의 취지는 원주민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해 원주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작품 상영을 포함해 상호교류의 기회 확대, 영화와 미디어아트 산업에 대한 활동, 그 외에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되었다. 축제 기간 동안 영화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부 영화작품들은 할리팩스(Halifax), 몬트리올(Montreal), 밴쿠버(Vancouver) 등 캐나다 전역에 대면 행사로 진행되었다.

(출처 : 이메진네이티브 영화·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

<sup>2</sup> 미디어아트(Media art) 또는 융합예술은 사진, 전화, 영화 등의 발명 이후 신기술들을 활용하는 예술

## 2. 문화산업

#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변화

### 일본

#### 미디어 아트 제도와 정책 현황

일본 「문화예술기본법」<sup>1</sup>과 일본 문화청의 '미디어 예술제'는 미디어 아트와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 만화 등을 포함한 미디어 예술을 별도로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디어 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 '미디어 예술 인재 육성', '미디어 예술 연계 방안' 등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 일본은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과 디지털을 이용한 예술(이하 '미디어 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미디어 예술의 제작, 상영, 전시 등에 대한 지원, 미디어 예술의 제작 등과 관련한 물품 보존에 대한 지원, 미디어 예술에 대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계승, 예술제 개최, 기타 필요한 사책 강구

#### • 일본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

- 주요 내용 : 미디어 아트,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 만화 중 우수한 작품을 알리고 수상 작품 감상의 기회를 갖는 미디어 예술 종합 축제
- 활동 : 1997년부터 수준 높은 예술성과 창조성을 가진 뛰어난 미디어 예술작품 발굴, 수상작품 전시와 심포지엄 등의 행사를 통해 수상 작품전 개최
- 특징 : '제24회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에서 기존 제작 방식과 최신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작품들이 다수 수상작으로 선정

#### • 미디어 예술 창작자 육성 지원 사업

- 주요 내용 : 젊은 창작자들의 예술 활동 지원, 차세대 미디어 예술을 이끌 창작자들의 수준 향상과 육성 환경을 정비
- 목적 : 큐레이터 등 예술계 인재들을 위해 해외 파견과 역량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일본 미디어 예술 수준의 향상과 발전에 기여
- 활동 :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 수상작 등 새로운 작품 기획, 전문가 참여와 기술 전수를 통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국내외 창작자 교류회 개최, 성과발표회 등 다양한 기획 제작 과정 지원 등
- 기타 : 해외 파견 프로그램의 경우 미디어 예술 장르를 과학과 산업 등 분야와의 융·복합 개념으로 새로운 문화의 형태를 창조할 수 있는

차세대 큐레이터와 문화 제작자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

• **애니메이션 인재 육성 조사 연구 사업**

- 주요내용 : 애니메이션 산업의 기술 전수를 위한 실무 교육과 기술향상을 위한 기술 보안 프로그램 운영
- 목적 : ‘애니메이션 씨앗’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 현장에서 인력 감소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 수행
- 활동 : 사단법인 일본동화협회의 ‘애니메이션의 씨앗’ 매년 개최

• **미디어 예술 연계 등 기반 정비 추진**

- 주요내용 : 산·학·관 협력을 통해 미디어 예술 분야의 신속한 과제 해결 방안 마련, 미디어 예술작품의 아카이브 지원과 아카이빙 자료들을 활용한 전시 등 다양한 사업 운영
- 목적 : 아카이브와 큐레이션 활동의 지원 등 향후 미디어 예술 작품의 수집·보존·활용을 담당하는 전문 인재 육성 도모
- 특징 : 미디어 예술 데이터베이스(DB) 도입을 통해 문화청 예술제 출품작, 게임과 미디어 아트 전시 데이터 등 다양한 항목의 종합적인 검색 가능

• **미디어 예술 아카이브 추진 지원 사업(문화예술진흥 보조금)**

- 주요 내용 : 일본의 우수한 미디어 예술작품과 소실저하 등의 위험성이 높은 미디어 예술 작품의 보존·활용·출판 등 지원
- 활동 :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만든 아트(인터랙티브 아트, 설치, 영상 등)와 애니메이션, 특수촬영, 만화와 게임 등의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원
- 특징 : 오사카국제아동문학진흥재단의 어린이 잡지의 디지털화 등, 타마미술대학의 야마구치 카츠히로 비디오 조각 아카이브 사업, 게임보호협회의 일본 내 레트로 PC게임 데이터베이스(DB) 정보 입력 등 채택

(출처 : 미디어예술데이터베이스 공식 누리집, 2021.10.21./  
미디어예술크리에이터 공식 누리집일본문화청/문화청미디어예술제 공식 누리집/  
애니메이션인재육성조사연구사업 ‘애니메이션 씨앗’ 공식 누리집)

## UAE

### ‘Abu Dhabi Collectors’ Week’ 행사를 통해 소매업 유통 활성화 모색

아부다비 문화관광부는 지난 10월 ‘Abu Dhabi Collectors’ Week’을 개최해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요리 등 다양한 분야의 수집가와 수집품들을 다뤘다. 본 축제는 아부다비의 국내외 관광을 활성화 하고 지역 디자인과 창의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기위해 개최되었다. ‘Abu Dhabi Collectors’ Week’ 행사에서는 NFT 도입과 스니커즈 컬렉션,

자동차 전시장 등이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Abu Dhabi Collectors' Week'은 쇼핑 체험, 유희적인 활동과 개성 있는 요리가 핵심으로서 UAE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출처 : 아부다비 문화관광부, 2021.09.27)

## 필리핀

### 「필리핀창의산업개발법안」통과

필리핀 하원에서는 지난 9월 「필리핀창의산업개발법안」을 175명의 하원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필리핀창의산업개발법안」은

2021년 8월 30일 빅토르 압(Victor A. Yap) 필리핀 하원의원 외 106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필리핀 창의 산업 홍보와 발전 및 자금 제공법률」 또는 「필리핀창의산업개발법」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 이후, 필리핀 창의산업 개발위원회(DTI)가 설립되며 해당 기관의 위원회는 필리핀 교육부, 필리핀 창의산업 개발위원회(DTI), 필리핀 과학기술부,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 필리핀 관광부 등 총 8명의 고위 관료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임기 6년 민간위원 9명을 선발해 대통령령으로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디자인, 출판업, 시각 예술계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 선발된다.

(출처 : Philippine Daily Inquirer, 2021.09.20)

### 필리핀 특허청, 필리핀영화진흥위원회와 불법 복제 근절에 대한 상호 협약 체결

필리핀 특허청은 필리핀영화진흥위원회와 공동으로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 영화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해각서 내용에 따르면, 필리핀 특허청과 필리핀영화진흥위원회는 저작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와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 Business Mirror, 2021.09.28)

##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어의 더빙과 자막 의무화에 관한 「영화촬영법」 개정안 발표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는 외국영화에 대한 카자흐스탄어 더빙과 자막 삽입 의무화의 내용을 포함한 「영화촬영법」개정안을 지난 9월 발표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9월까지 자국어로 상영된 영화가 35편 이상이며, 후원자들이 약 14억 텡게(약 38억 6,400만 원)를 투자했다. 영화계 이해관계자, 유관기관, 관련 분야 종사자 등이 실무단을 구성해 영화 자막의 카자흐스탄어 더빙에 대한 표준화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영화촬영법」개정안은 오는 12월에 국회에 제출돼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2021.09.16.)

## 태국

### 소프트파워 강화 정책 논의

태국 정부는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각 태국의 정부 부처에서도 소프트파워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나리숏 전(前) 아르헨티나 대사는 “닉쿤과 리사 등 태국 출신의 한국 아이돌 멤버들이 K-Pop에서 태국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태국 청소년들의 K-Pop 활동 자체가 태국의 소프트파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국발전연구원, 태국산업연맹, 디지털경제진흥국 등의 유관 기관에서도 소프트파워 강화 정책에 대한 태국 정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 건 전(前) 재무부 장관의 제안

- 태국 문화부를 경제부처의 창조부로 조정해 창조경제의 역할 확대
- 태국 국민들이 인터넷과 디지털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지식재산권 보호와 「창조경제지원법」 등의 제도 보안 제안 등

#### • 태국발전연구원

-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해 문화와 산업 분야와의 연결 체인망 구축

#### • 태국산업연맹

- 문화와 산업이 상호 연결 될 수 있는 전략 필요
- 국가기관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 공유

#### • 디지털경제진흥국

- 제작자 지원과 창작활동 규제완화
- 인재 조기 발굴과 육성
-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소프트파워 부문별 역량 강화

(출처 : BangkokPost, 2021.10.11/Naewna, 2021.09.17.)

## 미국

### 국제연극무대종사자연합(IATSE), 노동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 경고

할리우드 제작진들은 지난 10월 화장실 사용과 식사 시간 등 노동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연극무대종사자연합(IATSE)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비자들이 집에서

여가를 보내기 위해 온라인 스트리밍을 찾게 되면서 TV와 영화 제작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으나, 배우와 스태프 등의 영화계 종사자까지 확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영진들은 파업을 막기 위해 노조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washingtonpost, 2021.10.13.)

## OTT 기업, 아시아로 지부 확대

디즈니 플러스(Disney plus)와 넷플릭스(Netflix) 등 OTT기업은 아시아 제작 콘텐츠가 잇따라 성공하자 아시아 지부 확대와 아시아 제작 작품 50여 개를 2023년까지 송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디즈니 플러스가 유통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는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8개 국가이며, 전 세계 61개 시장에서 1억 1,6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디즈니 플러스가 유통될 예정인 아시아 국가는 한국, 홍콩, 대만 3개국이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기관인 센서 타워 데이터(Sensor Tower data)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즈니 플러스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세계 소비 시장에서 15억 달러(약 1조 7,534억 원) 수익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문화예술 영역 이외에도 기업, 정부, 학교 등에서 통신 수단으로 사용되어 그 영향력이 향상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영향력 향상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이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증명
- 오프라인 서비스도 동영상 등 온라인 서비스와 병행할 때 효과적이라는 인식
- 온라인 스트리밍 행사의 낮은 진입 장벽으로 더 많은 사람이 참여 가능 등

(출처 : CNN, 2021.10.14./Forbes, 2021.10.08./SensorTower, 2021.10.01./Forbes, 2021.10.14.)

## 평균 연령 15.8세 청소년들의 전자 상거래 수요 증가

미국 청소년 1만 명을 대상으로 누리 소통망(SNS)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연령 15.8세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누리 소통망은 인스타그램(Instagram)(81%), 스냅챗(Snapchat)(77%), 틱톡(TikTok)(73%), 트위터(Twitter)(38%), 핀터레스트(Pinterest)(33%), 페이스북(Facebook)(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오프라인 매장에서 전자 상거래 사이트로 대규모 전환한 젊은 사람들의 소셜 미디어 습관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소매업체에게는 소비자 유형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광고업계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누리 소통망에 대한 광고 지출이 약 415억 달러(약 49조 원)로 급증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 12%이상 증가했다고 보고됐다. 미국의 투자 은행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28%가 누리 소통망에서 직접 품목으로 구매할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Forbes, 2021.10.14.)

### 북미 최대 규모의 '아카데미 영화박물관' LA에 개관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이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sup>1</sup> 주관으로 지난 9월에 LA에서 공식 개관했다. LA에 개관한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은 할리우드 영화산업의 역사와 문화를 고찰하고, 영화 제작사와 관객들을 위해 북미 최대 규모로 조성됐다. 자본금은 약 2만 8,000㎡ 부지에 4억 8,200만 달러(약 5,639억 4,000만 원) 상당이 투입되었다.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의 상설전에는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제공되고, 한국의 유명한 감독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sup>1</sup> 아카데미 시상식 주관기관

(출처 : yna, 2021.10.01./latimes, 2021.10.09.08.)

##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의 강화와 국제무대의 진출을 위한 영화제 개최

피트라(Fitra) 인도네시아 문화교육부 사무총장은 '2021 인도네시아 영화제(FFI)' 행사에 참여해 "인도네시아 영화가 민족의식을 강화시키고, 문화외교의 자산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문화교육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화 제작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최고의 영화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차하하며, 올해 개최되는 FFI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FFI는 1955년에 개최하여 인도네시아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영화산업의 시상식으로 자리잡았다. '2021 FFI'는 2020년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10일에 온라인을 통해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 Antaranews, 2021.10.10.)

###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문화콘텐츠 이용자 연령 제한 규정 준칙 강조

인도네시아 학부모텔레비전·미디어위원회(PTC)는 OTT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 18세 미만인 연령 제한 드라마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연령 제한 표시를 하지 않고 온라인에 송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멜리사 헨슨(Melissa Henson) PCT 대표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미성년자들을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령 제한 고지 없이 18세 이상의 드라마와 영화콘텐츠가 온라인에 송출되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인도네시아의 미디어·영상 콘텐츠 시청 관람에 대한 연령 제한이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전체 연령 관람 : 언어 또는 비언어적인 폭력장면 금지, 교육·문화·윤리에 대한 요건 충족
- 만 13세 이상 관람 : 영상 콘텐츠 내용에 교육적·윤리적 가치 등 사춘기 청소년들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 포함, 이성 간의 자유연애와 기타 위험한 장면 송출 금지
- 만 17세 이상 관람 : 만 13세 관람 내용과 유사하며, 교육 목적을 위한 건전한 남녀관계의 장면 제시 가능
- 만 21세 이상 관람 : 만 21세 이상 관람 장면의 경우, 23시에서 03시 사이 상영

(출처 : Detik, 2021.10.12.)

## 스웨덴

### 영화·드라마 제작비 연간 1억 크로나(약 136억 원)지원 결정

스웨덴 정부는 자국 내 영화·드라마 산업 발전을 위해 연간 1억 크로나(약 136억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스웨덴 영화계가 오랜 기간 제작비 절감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스웨덴 정부는 제작비용 최대 25%를 상환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본 지원사업의 목적은 영화·드라마 제작비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스웨덴 제작사의 유출을 막고 자국에서의 촬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에바 하밀톤(Eva Hamilton) 스웨덴 영화·드라마 제작사 회장은 “자국 내 영화·드라마가 활성화 된다면, 이는 곧 스웨덴 국가 이미지 홍보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SVT, 2021.09.14.)

## 독일

### ‘2021년 영화유산기금’ 프로그램 3차 추진에 181만 유로(약 25억 원) 지원

독일 영화진흥위원회는 ‘2021년 영화유산기금’ 프로그램에 대한 제3차 회의에서 67편의 영화 복원과 디지털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은 총 181만 유로(약 25억 원)이며, 28편의 영화는 평가 기준에 따라 최대 131만 유로(약 16억 원) 상당액의 지원을 받았다. 이번 지원 혜택을 받은 영화는 독일 영화 역사상 한 세기에 걸쳐 있는 작품으로 액션 코미디 영화 <콜레티는 어디에 있습니까?>(1913), 독일의 고전 영화 <뽀꾸기 시대> 등이다. 단편영화 <인권(Human Rights)>(1977)과 국제적으로 흥행했던 영화 <벨라 마르타(Bella Martha)>(2001)도 포함되었다.

(출처 : 독일 영화진흥위원회 보도자료, 2021.09.16.)

## 아르헨티나 시청각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시행

아르헨티나 문화부는 지난 10월 '시청각 산업 개발(Renacer Audiovisual)' 공모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공모사업의 목적은 아르헨티나의 시청각 산업을 활성화하고, 해당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획되었다. 아르헨티나 문화부는 24억 아르헨티나 페소(약 284억 원)를 투입해 다큐멘터리, 소셜, 역사, 애니메이션 등 5개 분야에서 약 82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아르헨티나 문화부, 2021.10.13./아르헨티나 문화부, 2021.09.17.)

## 영국

###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영국 정부는 자국 영화와 영상 콘텐츠를 세계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100만 파운드(약 16억 원) 규모의 영국글로벌스크린기금(UK Global Screen Fund)을 마련했다. 영국영화·TV프로그램 제작 재개 지원제도(UK Film & TV Production Restart Scheme)가 6개월 더 연장되어, 4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해당 지원제도는 2020년에 시작되어 영국 전역의 835개 영화와 영상 관련 제작사를 지원하고 7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23억 파운드(약 3조 7,145억 원)의 제작비를 지원했다. 또한 지원제도의 시행 시기는 2022년까지이며, 34,5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12억 파운드(약 1조 9,386억 원) 상당의 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리시 수낙(Rhishi Sunak) 영국 재무부 장관은 “영국의 영화·TV 프로그램 산업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일자리 계획의 일환으로 재가동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지원제도의 사업 기간을 연장해 제작사들이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영국 정부 보도자료, 2021.10.05.)

## 중국

### 연예인 기획사 규제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 통지 발표

중국 문화관광부는 지난 9월 '문화관광부의 공연 기획사에 대한 규범과 연예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공연 시장을 촉진'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표했다. 연예인들의 위법과 일탈, 악성 팬덤(Fandom)문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사회적 풍토를 저해하고 공연 시장을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중국 문화관광부는 일부 공연 기획 관계자, 자치단체의 문화관광부와 행정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원고 초안을 작성했다. 의견 수렴에 대한 통지문은 5개 항목과 19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엄격한 주최자 자격 관리 :
  - 「영업·연출관리」조례와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배우와의 계약, 홍보, 기획 등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공연 기획사를 대상으로 규제
  - 공연 매니저에 대한 자격인정제도를 엄격히 시행하되 영리적인 위반행위를 취할 경우 문화관광부의 권한으로 자격증 박탈 등
- 연예인 활동 표준화 :
  - 중국의 사회적 핵심 가치를 의식적으로 실천
  - 덕과 예술성을 모두 겸비한 문예인 요구
  - 연예인 기획사의 배우 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 함양
  - 연예인의 근무제 도입해 성인과 미성년 연예계 종사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장 등
- 공연 활동의 관리·감독 강화 :
  - 공연 활동 내용의 관리 강화와 예술 표현에 대한 정확한 지침 수립
  - 공연 기획사의 영업활동 시, 납세의무 이행 등의 관리·감독 이행
  - 공연 내용의 위반 또는 립싱크에 대한 처벌 강화 등
- 긍정적인 팬 문화 유도 :
  - 공연장에서 팬 응원행위에 대한 정면(正面) 안내 강화
  - 미성년자 공연장에서의 응원 집회 등 행사 참여 불가
  - 미성년자 관람 시, 응원 도구 소비 행위 금지
  -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리 보호 요구 등
- 건전한 공연 생태계 구축 :
  - 중국 문화관광부와 공연업계의 정책 논의 기회 마련
  - 법 집행 관리
  - 신용 관리·감독, 업계의 자율성 요구 등

(출처 : CCTV, 2021.09.18.)

## 미성년자의 게임중독방지 신고플랫폼 시행

중국 언론출판서는 미성년자 게임중독의 방지 구현을 위해 신고플랫폼의 시범 운영을 시행했다. 게임 이용자는 게임중독방지 규정을 미준수하는 게임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등 미성년자 게임중독 신고플랫폼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명인증을 통한 미성년자의 게임중독방지 위반행위 신고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게임 시간을 추가 제공하려는 게임업체 위반 사항 신고
- 부모의 허락 없이 게임 충전과 결제를 하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신고

(출처 : 바이두, 2021.09.16.)

##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 2021~2035년」발표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 2021-2035년」을 발표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 판권관리국, 과학기술부 등의 각 부처의 책임자들도 참여해 해당 분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요강을 발표했다.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 2021~2035년」의 주요 내용은 2025년까지 특허 집약적 산업의 부가가치 GDP 비중 13%까지 증가, 저작권산업의 부가가치 GDP 비중 7.5% 달성, 지식재산권의 저작권료 연간 수출입 총액 3,500억 위안(약 65억 원)까지 증액하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주무 부처가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국가지식재산권국

- 저작권산업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가 높아 해외지식재산권의 이용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의 높은 수출경쟁력 가능성 제시
- 저작권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 2021~2035년」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

### • 중앙선전부 판권관리국

-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의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문학, 예술, 과학 등의 영역에 저작권 기초의 틀 마련
- 향후 인터넷에서 저작권 보호가 지식재산권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인터넷 저작권을 중심으로 관련 업계 관리 강화 주장

### • 과학기술부

- 2020년 전국 기술시장에서 체결된 계약 건수 54만9,000여 건으로 2조 8,000억 위안(약 519조 원), 그중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건수 18만 6,000여 건으로 1조 위안(약 185조 원) 상당의 가치 형성
- 향후 첨단기술의 특허가 계약 협상 체결에 주요한 평가지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지식재산권과 과학기술교역센터의 확대 운영이 시급하다고 강조

### • 최고인민법원

- 지식재산권의 강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법적 조치를 구축할 예정
- 새로운 시대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재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 제시
- 반독점과 불공정경쟁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판례와 시범 해석을 공개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 유지
- 수준 높은 지식재산권 재판 기관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민사, 형사, 행정이 일체된 사법개혁 이행 목표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중국의 경제를 이끄는 경제구역과 협력해 법 집행력 메커니즘 향상
-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 집행 역량 강화 등

(출처 : baijiahao, 2021.10.01.)

## 3. 체육

### 카자흐스탄 **스포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카자흐스탄 올림픽위원회(NOC) 총회 개최**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는 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2020 도쿄올림픽’에서의 성과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준비에 대한 논의를 했다. 총회에는 악토타 라임쿨로바(Aktota Raimkulova) 장관, 예랄리 투그자노프(Yeraly Tugzhanov) 부총리, 티무르 쿨리바예프(Timur Kulibayev) NOC 회장과 각 스포츠 연맹 대표들이 참석해 각 부처별 의견을 발표했다. 악토타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장관은 “스포츠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미래 세대의 교육과 도덕적 가치를 심어주며 여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며, 이어서 “외국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프로 스포츠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주요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생활체육과 스포츠 기반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악토타 장관은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128일 남은 기간에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와 전국연맹 대표들은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표단이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며, 스포츠 부문의 인력 강화와 의료 기반 환경 개선 등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생활체육과 스포츠 분야의 발전을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 기관과 유관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2021.09.29)

### 폴란드 **‘올림픽 갈라’ 개최를 통해 ‘2020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 격려**

피오트르 글린스키(P. Glinski) 폴란드 부총리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들의 성과는 폴란드 스포츠에 대한 지원 강화와 스포츠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지적했으며, ‘올림픽 갈라’ 행사를 통해 폴란드 정부 관계자, 메달리스트, 감독 등이 모여 ‘2020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포상과 올림픽 성공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폴란드 국가대표들은 ‘2020 도쿄올림픽’에서 14개(금메달 4, 은메달 5, 동메달 5)의 메달을 획득했다.

(출처 : 폴란드 문화체육관광부, 2021.10.11.)

## 나이지리아

### 2022년 하반기 '트랙 아프리카 사이클 선수권 대회' 개최국 선정

국제사이클리스트연합(UCI)과 아프리카사이클연맹(CAC)은 나이지리아를 '트랙 아프리카 사이클 선수권 대회(2022년 7월~8월 개최 예정)' 개최국으로 승인하는 계약에 서명했다. 기안도메니코 마사리(Giandomenico Massari) 나이지리아사이클연맹(CFN) 관리 위원장은 "나이지리아 국가에 2022년 하반기 트랙 사이클 선수권 대회 개최권을 부여한 것은 사이클 발전을 위한 연맹의 헌신에 대한 인정이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이자 특권이다."라고 언급했다. 2022년에 열리는 '트랙 아프리카 사이클 선수권 대회'는 아부자(Abuja) 내 벨로드롬 패키지 A(Velodrome Package A)와 MKO 아비올라 국립 경기장(MKO Abiola National Stadium)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출처 : PM NEWS Nigeria, 2021.09.28.)

## 필리핀

### 세계적 수준의 운동선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필리핀 교육부의 산하기관인 필리핀국가스포츠아카데미(NAS)는 체육특기생 1기(2021-2022년) 장학생 65명의 선발을 완료했다. NAS는 필리핀스포츠위원회와 협력해 필리핀 내 세계적인 수준의 운동선수를 배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체육 특기 장학생은 필리핀 7학년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중고등 교육과정을 NAS에서 보내게 된다. 이번에 선발된 체육 특기생은 육상, 수영, 태권도, 유도, 탁구 등 8개 올림픽 종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NAS는 제1기 체육특기생의 교사 배치에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필리핀 교육부와 체결했다. 양해각서 내용에 따라, 수학, 과학, 영어, 필리핀어 등 각 교과목 교사들이 근교에 배치될 예정이다.

(출처 : Manila Times, 2021.09.25/Manila Times, 2021.09.23.)

## 일본

### '1회 Sports in Life Award' 공모를 통해 스포츠 대중화 실현

일본 스포츠청은 스포츠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port in Life Award' 공모 사업을 창설했다. 공모 사업의 목적은 공모에 선발된 방안들을 활용해 일본 국민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속의 스포츠 실현을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모 대상은 지방의 공공단체, 스포츠 활동 단체, 학교단체 등 해당 사업취지에 적합한 단체이면 응모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방안들은 'Sport in Life' 공식 누리집, 각종 미디어와 행사 등 다양한 경로로 소개될 예정이다.

(출처 : 일본 스포츠청 보도자료, 2021.09.15.)



## 호주

### 코로나19 이후, 스포츠 부문의 경제적 손실 규모 최대 41%

호주의 대표 스포츠 리그인 호주 럭비리그(AFL), 국가 럭비리그(NRL)와 호주 프로축구리그(A-League)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잠시 리그 운영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호주 스포츠의 경제적 손실은 최소 4%에서 최대 41%까지 이르렀다. 한편, 호주 지역사회의 스포츠 활동은 백신 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 abc, 2021.09.23.)

## 벨기에

### 악천후로 피해 입은 스포츠 장비 복구 지원금 지급

벨기에 프랑수아르권 정부는 지난 7월 발생한 악천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스포츠 장비 복구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했다. 스포츠 장비의 복구 비용은 대부분 보험사와 재난 기금을 통해 처리되었지만, 비용 지급에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벨기에 프랑수아르권 정부는 피해 복구 작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 벨기에 왈로니·브뤼셀 연맹 공식 누리집, 2021.09.14.)

## 인도네시아

###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 8,310억 루피아(약 687억 원) 추가 재정지원 확대

인도네시아 청소년·체육부는 파푸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 총 8,310억 루피아(약 687억 원)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체전에는 7,150억 루피아(약 591억 원), 장애인체전에는 1,160억 루피아(약 96억 원)의 재정을 지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미 2020년에 청소년·체육부를 통해 전국체전에 1,010억 루피아(약 84억 원), 장애인체전에 170억 루피아(약 15억 원), 운동경기 도구 구매 관련 보조금에 1,910억 루피아(약 158억 원), 인도네시아 체육협회에 305억 루피아(약 25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출처 : cnnindonesia, 2021.09.27.)

## 태국

### 프로 스포츠 종목 승인과 게임 시장 확대로 스포츠 부문의 역량 강화 추진

태국 체육청은 지난 9월 축구, 골프, 제트스키 등 13개 종목을 태국의 프로 스포츠로 인정했다. 프로 스포츠로 인정받은 종목들은 국제대회 참가와 인재육성, 선수 계약, 연봉 등 태국 체육청의 관리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태국의 게임시장 규모는 270억~290억 바트(약 9,596억~1조 307억 원)로 추산된다. 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게이머 직업은 4만 5,000 바트(약 160만 원) 이상 고소득의 전망 받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출처 : Brandinside, 2021.09.21.)

## 4. 관광

# 관광산업의 정상적인 복귀를 위한 움직임

### 러시아

#### 코로나19 이후 러시아 휴양지 수요 감소 전망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OTDYKH Leisure 2021' 관광박람회에서는 로마쉬킨(Romashkin) 관광·여행업계 대표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러시아 관광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광 전문가들은 이동 제한이 해제된 첫해에 러시아 관광 수요가 최소 20~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러시아 국민들은 코로나19 이전 해변 관광 상품이 전체 판매 매출의 50%를 차지할 만큼 해변관광을 선호했다. 2021년 여름에도 해변 관광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할 만큼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러시아 여행업체는 2021년에 남부 러시아 해변 관광지의 수요가 급증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20~25%까지 증가하나, 이는 코로나19 제한조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Ator, 2021.09.09.)

### 프랑스

#### 친환경 여행 각광

최근 프랑스에서는 '슬로우 투어리즘(Slow Tourism)'과 지속가능한 관광(자전거 또는 기차이용) 등의 친환경 여행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인기를 끌고 있는 숙박시설은 천연자재로 지어진 곳을 비롯해 수자원을 재활용하거나 태양광 패널로 난방을 하는 호텔이 각광을 받고 있다. '슬로우 투어리즘'의 일환으로 농장에서 일상 체험을 하며 자연과 함께 여유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과 하이킹 여행이 여행자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자전거 관광이 2020년에 등장하면서 프랑스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경로를 여행 웹사이트에 공개해 이용객이 86% 증가했다.

(출처 : GEO, 2021.08.17.)

## 필리핀

### 필리핀 코로나19 팬데믹 대비 관광 부문 방역 지침 발표

필리핀 관광진흥청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RT-PCR 검사비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메트로 마닐라에서 출발하는 백신접종 완료자들은 순차적인 방식(Point-to-point)으로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자국 여행이 가능하다. 필리핀 관광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여행이 가능한 연령 대상은 18세 미만, 65세 이상 백신접종완료자, 백신접종을 완료한 민성질환자와 임산부이다.

(출처 : PNA, 2021.09.15./PNA, 2021.10.08.)

## 일본

### 일본 'Go To Travel' 사업 재개시기 검토

지난 10월 취임한 사이토 테츠오(Saito Tetsuo) 일본 국토교통대신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광수요 회복을 위한 'Go To Travel'사업의 재개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방일 외래관광객을 2030년까지 6,000만 명을 늘리는 것이 목표이다.

'Go To Travel' 사업은 코로나19 이후의 재개 시점을 둘러싸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논점이 되었었다. 방일 외래관광객 수는 2019년에 3,188만 명까지 증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에는 411만 명까지 급감했다. 사이토 대신은 "관광은 국가의 성장전략 핵심으로 지방 활성화를 위한 비장의 카드로 외래관광객 6,000만 명 목표달성을 위해 민·관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출처 : 일본경제신문, 2021.10.05.)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 시행

일본 관광청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실증조사를 통해 시행 효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고, 재감염 확산 시 집중증명서 등을 활용해 여행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증조사는 일본 내 여행업체 11개사와 협력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총 38개 관광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참가 조건은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3일 이내 PCR 음성 결과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단체여행객으로 한정했다.

또한, 일본 관광청은 설문조사를 통해 백신접종증명서 확인 의무, 안전한 여행 의견 청취, 여행자들의 건강상태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해 조사했다. 이어서 일본 관광청은 향후 숙박시설도 실증조사를 실시해 'Go To Travel'과 같은 관광진흥정책 사업에 활용가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요미우리신문, 2021.10.05.)

## 호주

### 호주 관광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호주 국경 재개방 계획 추진

호주 국민의 8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호주 연방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한하여 국경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외 관광객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오는 11월 해제된다.

(출처 : the guardian, 2021.10.01.)

### 오는 크리스마스까지 호주 국경 재개방 전망

호주 관광부는 늦어도 크리스마스까지 국경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16세 이상의 80% 호주 국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달성 시, 호주 국민의 해외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서 호주 연방정부는 자국의 백신 여권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른 국가와 협력하고 있으며, 숙소에서 머무는 기간 없이 절차가 간편한 자가격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는 현재 기간이 더 짧은 자가격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는 몇 주안에 자체 검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abc, 2021.09.22.)

### 뉴사우스웨일즈(NSW)로 돌아오는 유학생들의 귀국 계획 발표

올해 말, 수백 명의 유학생이 뉴사우스웨일즈(NSW)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과 네팔 출신의 유학생들은 NSW 주정부의 유학생 복귀 시범 계획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NSW 주정부는 화이자, 존슨앤드존슨,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호주식품의약품안전청(TGA)에서 공인된 백신 접종을 받은 학생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NSW 주정부는 12월 초 전 세계에서 오는 500여 명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호주 전역을 전세기로 여행하는 것을 2회 허용할 계획이며, 코로나19 검역 비용은 대학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abc, 2021.09.24.)

## 벨기에

### 관광 활성화를 위해 휴가비 지원 추진

플랜더스 관광청(네덜란드어권 지역)은 '제20주년 기념 플랜더스 관광 행사(Everyone Deserves Travel Tourism Flanders)'를 개최해 다양한 워크숍, 댄스 파티와 대규모 피크닉을 마련했다. '플랜더스 관광 행사'는 2001년에 설립돼 휴가를 활성화 시키고 휴가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원해왔다. 휴가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95만여 명의 플랜더스 시민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휴가를 보내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에 플랜더스 정부는 3,000여 개의 관광 업체와 사회단체와 함께 매년 15만 명의

플랜더스 시민들의 여행과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40%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플랜더스 관광청, 2021.10.01.)

## 인도네시아 발리와 리아우 제도, 외래관광객에게 시범 개방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전략추진단(T/F)는 지난 10월 14일부터 발리(Bali)와 리아우(Riau) 제도에 외래관광객 방문을 허용하고, 시범적인 개방을 통해 관광산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래관광객은 자가격리 기간이 5일로 축소되고 백신접종증명서, 건강보험증명서, 자가격리 숙소 예약 확인서 등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래관광객은 입국이 거부되며, 입국한 관광객은 해당 지역 보건소와 현지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10월부터 발리 공항에 국제선 취항을 재개했다.

(출처 : CNBC Indonesia, 2021.10.12.)

## 18개국으로 외래관광객 입국허가 추진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전략추진단(T/F)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통제 가능 수준인 양성률 5%미만(WTO)인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선 개방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제보건기구(WHO)의 평가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18개국의 대상 국가를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며, WHO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싱가포르를 제외된다고 언급했다.

(출처 : Detik, 2021.10.12.)

## 캐나다 연방정부 산하 육·해·공 운송 분야의 종사자와 여행객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의무화 발표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난 10월 육·해·공 운송 분야의 종사자와 여행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12세 이상 여행객들도 캐나다에서 항공과 기차를 이용할 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캐나다 연방정부는 여행객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여행 72시간 내 PCR 결과 음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행객은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기간 내에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못하는 여행객은 항공, 기차, 해상 교통을 이용해 캐나다 여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캐나다 연방정부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캐나다 교통국)

## 베트남

### 관광산업 재개 추진

베트남 문화체육부는 「관광 재개와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21년 말~’22년 초)」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 인증서를 소지한 국내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제승인 기준에 맞는 조건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 문화체육부가 제안한 푸꾸옥(Phu Quoc) 외국인 관광 재개 시범사업은 팜 민 쩌(Pham Minh chin) 베트남 총리의 지지를 받았다. 이에 끼엔장(Kiên Giang)성은 베트남 문화체육부와 공동으로 푸꾸옥의 코로나19 상황, 백신 잔여량, 백신 접종 현황 등의 상황을 고려해 관광 재개 시범사업을 2021년 10월에서 11월 중순으로 조절했다.

(출처 : 베트남 문화체육부)

###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사회적 재개를 위한 ‘백신 여권’ 승인 추진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백신 여권 승인’에 관한 공문을 통해 베트남 외교부 포함 관련 유관 기관들이 숙지하고 시행할 것을 전달했다. 이로써 베트남도 경제를 개방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회복하기 위해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신 여권’ 제도 도입에 동참했다.

(출처 : LuatVietnam, 2021.10.11.)

## 남아공

### 새로운 등급제(TQiT) 도입으로 국제 표준의 관광 시설 개선 추진

남아프리카공화국 관광등급위원회(TGCSA)는 숙박시설들이 국제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TGCSA의 승인 하에 새로운 등급제(TQiT)를 도입했다. 새롭게 도입한 등급제는 숙박업소, 행사와 회의 장소들이 보다 간편하게 등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TGCSA가 사용한 등급제는 영국에 기반을 둔 회사였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TQiT는 공정한 입찰을 통해 선정된 남아공 소재 기업인 OTB(IT 솔루션 회사)가 관리를 맡게 되었다. 새롭게 개선된 TQiT의 주요 내용은 현대 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넷망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다양한 플랫폼과의 통합 가능한 기술력, 직관적이고 용이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이 있다.

(출처 : 남아공 관광부, 2021.0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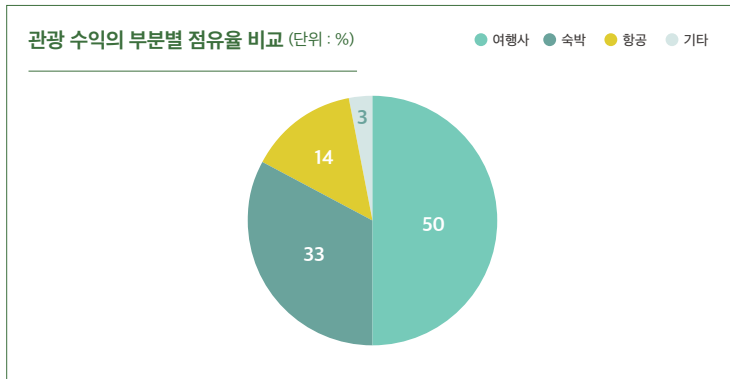
## 아르헨티나

###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관광 사전계획(2021 Previaje)’ 사업 시행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의 관광과 관광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관광 사전계획(2021 Previaje)’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광 사전계획’ 프로젝트는 항공권, 호텔, 렌트카 등 여행 지출 비용의 50%를 환급해주며, 환급금의 최대 비용은 10만

아르헨티나 페소(약 118만 원)이다. 100만 명의 아르헨티나 시민들이 이번 '관광 사전계획'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170억 아르헨티나 페소(약 2,101억 원)의 관광 수익을 얻었다. 관광 수익의 부문별 비중은 행사 50%, 숙박시설 33%, 항공 14% 순으로 나타났다. 환급된 비용은 아르헨티나 국민은행(BNA)의 모바일 앱(App)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카드 사용처는 2022년부터 요식업이 추가되어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아르헨티나 체육관광부, 2021.10.13./NACION, 2021.10.07.)



(출처 : 라나시온(La Nacion)m 2021.10.07.)

## 중국

### 건전한 관광시장 형성을 위한 단속강화 추진

중국 문화여가부는 무허가 여행사 운영 등 불법 영업 행위를 시정하고, 관광시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시를 포함 13개의 성은 이미 관련 법에 따라 '무분별한 저가 여행상품'에 대한 사건을 조사해 처리했다. 중국 문화여가부는 2021년 3월부터 13만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해 중국 전역에 무허가 여행사의 특별 단속을 시행했다. 그 결과, 관광업체 4만 3,000여 곳 중 무허가 영업 758건이 입건됐고, 597건을 처리했다. 불법 온라인 여행사(OTA) 1,315곳 중 829개의 온라인 여행사가 입건 전 조사 단계에 들어갔다. 이어서 147곳은 사이트 폐쇄, 175곳은 인터넷 이용자 등록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중국 문화여가부는 182곳의 온라인 사이트를 4차례 걸쳐 단속했다.

또한 중국 문화여가부는 관광시장에 만연되어있는 저가 여행상품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위해 중점 단속 사항으로 규정했다. 이어서 특별 단속, 휴업일 단속, 온라인 관리·감독 등의 각종 법 집행이 강화되어 '무분별한 저가 여행상품' 관련 사건이 처리됐으며, 최근까지 46개 여행사가 불법 소득 환수,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출처 : travel, 2021.09.24.)

## 싱가포르

### 한국과 공동으로 여행안전권역(VTL) 시행 발표

싱가포르 교통부는 오는 11월 15일부터 한국과 공동으로 여행안전권역(Vaccinated Travel Lane, VTL)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VTL 지정 항공편을 이용한 백신접종완료자는 한-싱가포르 양국 간에 자가격리 없이 여행 가능하며, 양국이 상호 합의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와 PCR 음성 결과 확인서 등 입국에 필요한 서류들을 소지해야 한다. VTL 합의에 따라 싱가포르는 한국을 포함해 브루나이, 독일, 캐나다, 덴마크 등의 국가와 협정을 체결했다. 리릭신(Lee Lik Hsin) 싱가포르 항공 수석 부사장은 “싱가포르항공은 자가격리 없는 해외 여행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 THE STRAITS TIMES, 2021.10.10./싱가포르 교통부, 2021.10.08.)

## 태국

### 고소득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장기거주비자' 신규 도입

태국 정부는 침체한 태국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고소득 외국인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장기거주비자' 신규 도입을 추진했다. 본 정책의 취지는 관광객 수보다 고소득 관광객에 초점을 두고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장기거주비자' 도입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대상

- 부유한 세계시민 : 태국에 50만 달러(약 6억 원) 이상 투자자, 2년 간 수입이 8만 달러(약 9,442만 원) 이상, 자산 100만 달러(약 12억 원) 이상인 자
- 부유한 연금수령자 : 태국에 25만 달러(약 3억 원) 이상 투자자, 연간 4만 달러(약 4,721만 원) 이상 연금수령, 연간 8만 달러(약 9,442만 원) 이상 연금 수령
- 전문직 : 2년 간 수입이 8만 달러(약 9,442만 원) 이상, 지적재산권 보유자, 5년 이내의 수준급 학술 활동인
- 고숙련 전문직 : 지난 2년 간 수입이 8만 달러(약 9,442만 원) 이상, 관련 업종 박사학위 소지자

• **혜택** : 90일 신고 면제, 취업, 배우자와 자녀 동반 신청 가능

• **기타** : 태국의 내무부,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투자청 등 각 부처별 관련 실무 절차 검토 계획

(출처 : 태국 관광청)



# II

## 세계는 지금 [이슈 동향]

1. 아프리카 대륙에 신한류를 알릴 또 하나의 등불 켜지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세계 33번째 한국문화원 개원
2. 코로나19 이후, 예술기관들의 운영 재개를 위한 방역 지침과 실행전략
3. 창익 유럽 프로그램 2021-2027

# 아프리카 대륙에 신한류를 알릴 또 하나의 등불 켜지다

## :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세계 33번째 한국문화원 개원

오는 2021년 11월 1일, 아프리카 대륙에 또 하나의 문화원이 개원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경제를 이끄는 선도국으로 다인종 국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세워지는 세계 33번째 한국문화원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하면 흔히 '넬슨 만델라의 나라', '2010년 월드컵이 열린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남아공은 아프리카 유일의 G20 국가로 금과 다이아몬드와 와인의 나라로 아프리카 최대 시장이자 아프리카 진출의 관문이 되는 곳이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무지개 나라(Rainbow Nation)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다채로운 풍경, 생기 넘치는 음악,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나라이며, 노벨상 수상자를 세 명이나 배출했다. 이러한 흥미로운 나라에 한국문화원을 개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한국문화가 어떻게 남아공에 융합될지 기대와 설렘이 크다.

### 1. 남아공 한류 현황

#### ① K-Pop

남아공은 한국에 영어 교사를 파견할 수 있는 6개 국가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에 영어 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다. 이를 통해 한해 900여 명의 영어 교사들이 한국을 찾고 있으며, 관광, 유학,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인구를 합하면 매년 만 명 이상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한국문화가 전파되고 인터넷 환경 변화 등으로 누리 소통망(SNS), 유튜브(You Tube), 넷플릭스(Netflix) 등의 미디어 채널을 통해 한류가 스며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아프리카 최대 남아공 케이블 방송 DSTV에서 3월부터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채널인 티비엔(tvN)을 유치해 인기 있는 한국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남아공에서의 한류는 아직까지 케이팝(K-Pop), 한국 드라마가 주도하고 있고 이들의 인기가 팬덤(Fandom)을 형성해 자발적인 한국문화 알림이 역할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Facebook)의 'K-Pop을 사랑하는 사람들(South Africans who love K-Pop)' 페이지 가입자 수는 2021년 10월

현재 3,038명이다. 2012년 PSY의 '강남스타일'을 계기로 남아공에 K-Pop이 알려지게 된 이후, 현재는 방탄소년단(BTS)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2016년 4월 처음 개설된 페이스북 남아공 방탄소년단 팬 페이지 '방탄소년단 남아프리카(BTS ARMY South Africa)'의 가입자 수는 현재 5,600명이다. 이들은 2018년 6월 방탄소년단 5주년을 기념해 케이프타운의 대형 쇼핑몰 커넬 워크(Canal Walk)에 5주년 축하 광고판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The Justice Desk'라는 방탄소년단 팬모임은 성폭력, 인신매매, 아동학대,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방탄소년단의 유엔연설에서 영감을 받아 강간과 성폭력 여성 생존자 지원 프로젝트 'The Mbokodo Club'을 진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하면서 한국의 TV 프로그램에 방영되었다.

## ② 한글학교

현재 남아공에서는 재외동포재단에 등록된 7개의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350여 명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요하네스버그 한글학교는 1992년에 개교했고 두 번째 규모인 프리토리아 한글학교는 1994년에 개교해 남아공의 한글학교는 3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다. 그동안 한글학교는 한국어 강의를 통해 남아공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였다. 내년부터는 문화원에 세종학당을 개설하여 남아공인들에게 한국어 공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한국어 보급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③ 태권도

남아공스포츠포럼과 남아공올림픽위원회에 정식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남아공태권도협회는 1991년부터 아프리카태권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 회원으로 등록되어 올해로 탄생 30주년이 된다. 남아공태권도협회는 현재 남아공 9개 주에 걸쳐 협회에 등록된 시설에서 태권도 수업을 진행 중이며, 등록 회원 수는 700여 명이다. 남아공에서 태권도는 군 체력 과목으로 채택되어 군부대를 통한 태권도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방어기술에 뛰어난 평가를 받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II. 2021년 11월, 아프리카에 새로운 문화원 개원

코로나19로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최장기간 봉쇄조치를 단행했던 남아공의 위기상황에서 개원을 준비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최근 남아공은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많이 잦아들었고 봉쇄조치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1월 24일로 계획한 개원행사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2층 단독건물을 임차해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한 주남아공 한국문화원은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과 함께 3개의 전시실, K-Pop과 태권도

연습실, 전통한옥 체험실, 도서관, 쿠킹 스튜디오, 3개의 강의실, 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공간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문화원이 남아공 교민들에게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되고, 남아공인들에게는 문화원이 한국을 알 수 있는 즐겁고 아름다운 공간이어서 자주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려고 한다.

개원행사는 '전통과 첨단기술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전통적 한류 콘텐츠가 첨단기술을 통해 어떻게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기 위해 한국 로봇, 미디어 공연과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가장 아날로그적인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며, 이러한 시기를 맞아 개원행사에서 전통적 K-문화가 한 단계 도약하는 신한류의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남아공에서 한류 전파를 위한 3가지 전략

#### ① 다양한 범위의 한국문화 콘텐츠 소개

남아공에서 인기 있는 K-Pop과 드라마에 한정하지 않고 영화, 패션, 뷰티, 음식, 한국어, 스포츠, 게임, 애니메이션 등 한국문화 전반을 포함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함으로써 K-문화의 의미를 확장 시킬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의 미래기술을 적극 홍보, 연관 산업과 협업해 문화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 ②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장기적 교류 및 연계·융합

남아공의 문화정책과 방향을 검토하고 국가적인 축제나 정부 주도의 대규모 문화행사와의 연계를 도모해 한국문화를 남아공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파하고자 한다. 또한 양국의 문화와 예술인들 교류, 문화체험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장기적인 교류 방안을 모색해 서로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홍보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 ③ 온라인 네트워크 활용으로 남아공 전역에 팬덤 구축

디지털 전환 추세에 발맞춰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 남아공 전역에서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활동이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K-문화 팬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한국문화를 좋아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코로나19 이후, 예술기관들의 운영 재개를 위한 방역 지침과 실행전략

본 내용은 미국 국립예술기금(European Parliament)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원제 The Art of Reopening : A Guide to Current Practices Among Arts Organization During COVID-19

발간일 2021.

발간처 미국 국립예술기금(NEA)

링크 <https://www.arts.gov/impact/research/publications/art-reopening>

## 요약

미국 국립예술기금(NEA)은 다양한 예술 분야, 예산 규모와 지역을 대표하는 9개 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재개방을 한 예술 단체의 공통된 방식을 분석했다. 예술 단체는 지역사회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내의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에 요구에 맞게 기획을 하고 전문 공중보건 전문가의 의뢰를 통해 재개방 전략을 수립하는 등 안전 프로토콜을 마련했다. 예술가와 예술업계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문화계의 여러 기관에서 노력하고 있다.

##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고통을 감안할 때, 예술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컸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술 사업체들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규제 때문에 문을 닫았다. Americans for the Arts의 자료에 따르면, 비영리 예술 단체들의 41%가 2020년 11월 초 현재 문을 연 반면, 59%는 문을 닫은 채로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 보고서는 설문 조사와 인터뷰 데이터를 결합해 물리적 공간에서 관객과 다시 호흡하고자 하는 예술단체의 노하우(Know-how)를 제시했다.

2020년 4월, 미국 국립예술기금(NEA)은 예술 분야에서의 16개 국가서비스기관(NSO)을 대상으로 공중 보건 상황이 허락된다면,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조사했다. 2020년 9월, NAE는 통계청과 함께 후속 조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문화예술 기관이 재개장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예술가, 예술업계 종사자 등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동을 했는지 분석했다. 2020년 9월 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예술 단체들이 후원자들을 위해 재개방 하지 않았다. 공연예술보다 박물관에서 재개방이 수월하지가 않았다. 통계청은 또한 회원들의 재개방 계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위생 프로토콜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회원 예술 단체들의 최우선 관심사로 직원들과 예술가들의 사기와 사회적·정서적 복지의 문제를 파악했다. 또한 조사 데이터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상(VR) 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많은 예술 단체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 I. 지역사회와의 유대 관계 강화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게 실내외 프로그램, 가상 예술 참여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0년 초,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적 모임과 여행보다는 거주지 근처에 머물러야 했다. 덕분에 가상 예술이 빠르게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예술에 참여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빌 스테판 리드 공연예술센터 전무는 링컨시의 시민들을 위해 모바일 음악제를 기획했다. 지역 관객의 참여는 많은 예술 단체들에 수입 원천이지만, 이는 사회와 지역사회와의 연대감을 충족시키는 역할도 한다.

- **아메리칸 셰익스피어 센터(American Shakespeare Center)** :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야외 공연을 샬로츠빌(Charlottesville), 해리슨버그(Harrisonburg), 렉싱턴(Lexington) 등 다양한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야외 공연행사 개최했다.
- **신시내티 발레(Cincinnati Ballet's)** :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발레 야외 공연을 개최하고, 지역주민과 건강한 조합을 형성했다.
- **네브라스카의 공연예술 리드 센터(Nebraska's Lied Center for Performing Arts)** : 주말에 자동차 드라이브 영화관을 기획하고 고전 영화와 가족 친화적인 작품들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집에만 머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인근 교외 지역에서 약 160편의 장편·단편 영화 상영으로 6,000여 명의 관람객 참석했다.

## II. 예술 시설의 재개장을 위한 공중보건의 지침과 권고 사항

문화예술 시설의 재개장 계획의 일환으로 예술 단체는 안전 프로토콜에 대한 지침과 임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이사진이나 후원자를 통해 의료 전문가들에게 연락했다. 일부 예술 단체는 전문지식의 함양을 위해 해당 지역 대학의 의료 센터 또는 지역 병원과 제휴해 코로나19 검사 시행사와 협력했다. 의료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은 예술 단체가 시, 주, 연방 단위 기관들의 공중보건 지침을 검토하고 시설과 프로그램에 적합한 프로토콜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 **아메리칸 셰익스피어 센터(American Shakespeare Center)** : 아메리칸 셰익스피어 센터(ASC)는 지역 병원과 함께 예술기관의 재개장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관람객의 마스크 착용, 매표소(Box Office) 주변에 비말 차단용 스크린 철거, 극장 회원들의 코로나19 증상 의뢰 등 의심스러운 모든 항목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 휴스턴 미술관(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 베일러(Baylor) 의과대학과 현장 실험을 위해 휴스턴 미술관(MFAH)은 최신 안전 프로토콜에 대해 협의해 왔다. 베일러 의과대학 연구팀은 코로나19의 전염 통로, 잠복기, 바이러스 전파 등에 대해 미술관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베일러 의과대학과 MFAH는 현장 실험 비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 트루 콩코이드 보이스와 오케스트라(True Concord Voices & Orchestra) : 이사회에 현직 의사를 임명하여 예술가들의 수용 방법과 안전 수칙에서 관객들의 관리 방안에 대해 자문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한, 콩코이드는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수행하는 업체와 협업을 통해 전문 의료진 감독하에 안전 지침을 운영했다.

### III. '아티스트 포드(Artist Pods)' 프로그램을 통한 예술가들과 함께 공동체 의식과 연대의식 함양

공연 예술가와 공연업계 종사자들을 격리하는 방식을 '포드(Pods, 유선형 공간)'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식은 예술가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길러줄 수 있다. 신시내티 발레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강도의 사회적 고립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결과로 무용수들이 팬데믹을 극복하고 무대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예술가와 관리자들이 안전 프로토콜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준다.

- 버크셔 극장 그룹(Bershire Theatre Group) : 버크셔 극장은 태드 클래프 하우스(Thaddeus Clapp House)라는 주택에서 배우들을 한 공간에 머물게 했다. 배우들은 모두 한 집에서 머물며, 작품과 경험 등을 이야기하는 등 색다른 공동체 경험을 했다.
- 신시내티 발레(Cincinnati Ballet's) : 안전 프로토콜을 도입해 발레 무용수들을 그룹별로 격리하거나, 포드(Pods, 유선형 공간)방식을 이용했다. 리허설을 하는 동안 무용수들은 8명 이하로 제한된 포드에서 머물며 일을 하고 공간이 서로 겹치는 것을 피해 리허설 시간을 다르게 배분했다. 또한, 신시내티 발레단은 스태프와 댄서들이 집이나 연습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원격 훈련이나 안무가와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기술에 투자했다.

### IV.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많은 예술 단체들은 자주 소통했지만, 현재 언제 코로나19가 종식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과 앞으로 또 있을지도 모르는 예상치 못하는 사건에서 에이미(Amy) 미국 세익스피어 센터 직원은 "많은 정보를 제공할수록,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일"이라며,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 트루 콩코이드 보이스와 오케스트라(True Concord Voices & Orchestra) : 임직원들로 구성된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문화시설의 재개장을 계획했다. 전략추진단은 공연 프로그램과 시설 재개에 대해 예술가,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콩코이드는 설문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계획에 반영했다. 다시 말하면, 콩코이드의 성공적인 재개 배경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 **신시내티 발레(Cincinnati Ballet's)** : 신시내티 발레단은 재개장을 위해 미국뮤지컬아티스트협회(AGMA) 소속 의료진과 협의하고 직원들과 정부 관계자들도 충분히 협력하여 이루어졌다. 이사진들은 재개장과 관련한 자문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교환했다. 그 외에 인사, 운영, 행정, 발레 거장, 예술 감독에 이르기까지 발레단 직원들이 운영 계획을 결정하는 데 동참했다.

## V. 예술 부문의 개장을 위한 원칙과 예술계 종사자들의 공동 목적의식

예술가, 관련 종사자, 협력사 등 문화예술 관련자들은 문화예술 시설의 재개장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통해 공동 의식을 회복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사람들은 음악과 예술이 필요하다. 이에 예술 단체들은 예술을 통해 공동체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예술가들이 생존하고 번창하기 위해 공동체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 **버크셔 극장 그룹(Bershire Theatre Group)** :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위기 상황에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에서 여름에 재개장을 하겠다는 공약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 **GALA 히스패닉 극장(GALA Hispanic Theatre)**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이용해 GALA 히스패닉 극장의 공간을 개조할 계획을 세웠다. 미술관을 다시 설치하고 인상파 작품을 전시하고, 전시 벽면에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등 잠정 폐쇄기간 동안 극장 관계자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었다.

## VI. 예술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미디어 기술 이용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몇 달 동안 가상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은 어려운 일이었다. 필요성은 있었지만, 많은 예술 단체들은 양질의 온라인 프로그래밍을 만들 전문성, 소프트웨어와 장비가 없었다. 이 딜레마를 인식한 몇몇 예술 단체들은 온라인 발표에 경험이 있거나 장비와 전문지식을 가져올 수 있는 단체와 협력했다.

- **아메리칸 셰익스피어 센터(American Shakespeare Center)**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SC는 버지니아주 스톤튼(Staunton)에 있는 딥 스트럭처(Deep Structure) 제작사와 샬럿즈빌(Charlottesville)에 본사를 둔 팔러딘 미디어 그룹(Paladin Media Group)이 지역 영화 제작에 동참했다. Marquee TV와 협력해 북미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 첫 번째 극장이 되었다.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송출된 두 작품은 오셀로(Othello)와 십이야(Twelfth Night)가 있다.
- **트루 콩코드 보이스와 오케스트라(True Concord Voices & Orchestra)** : 브람스의 레퀴엠 콘서트를 녹음하기 위해 애리조나 PBS와 제휴를 맺었다. 그 콘서트는 실내에서 녹음을 진행했고, 온라인에서 관람이 가능하다. 2020년 가을, 관객들이 콘서트를 구매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티켓팅 플랫폼에서 비디오의 접근성을 허용했다. 콩코드의 관계자는 새해에도 콘서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재공개할 계획이다.



## 정책 제언

예술 단체들이 공유하고 있는 교훈은 역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술의 혁신적인 힘을 다시 불어넣는 계기가 된다. 가상 프로그램이 가까운 미래에 예술계에서 중요한 장르로 남을지 모르겠으나, 직접 경험한 예술을 대신하지 못한다. 보도 필름 센터(Sdiewalk Film Center)와 시네마에서 열린 자동차 전용 극장 상영회에 참석한 관람객들은 코로나19 이후 영화 관람을 한 사실에 감격했다. 영화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의 경험하는 영화 관람이나 티켓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대신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스콜 올트먼 신시내티 발레단 대표도 예술 단체들이 안전하게 재개방을 하고 예술의 즐거움을 우리의 삶과 지역사회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 창의 유럽 프로그램 2021-2027

본 내용은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 원제 Creative Europe programme 2021-2027

발간일 2021. 06. 17.

발행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링크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18/628229/EPRS\\_BRI\(2018\)628229\\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18/628229/EPRS_BRI(2018)628229_EN.pdf)

### 요약

유럽 위원회는 유럽의 창의 프로그램을 유럽의 가치, 권리와 정의를 지원하는 다른 프로그램과 통합할 가능성을 고려해 '창의 유럽' 프로그램에 예산을 17% 늘리기로 했다. 이전 프로그램은 문화 부문의 경제성,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의 기여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경제적인 측면은 국제 관계에 대한 문화 부문의 기여와 사회적 측면과 함께 나란히 두었다. 따라서 문화 정책의 새로운 틀은 문화·창의적 부문의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결속에서의 문화의 역할과 창의적, 예술적 자유와 다양성 그리고 미디어의 자유와 다원성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 주요내용

유럽 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6조와 167조에 따르면, EU의 역할은 EU의 문화다양성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이 분야에서 회원국들의 노력을 지원, 보완과 조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문화 정책은 문화와 창의 관련 조직과 기업의 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체성과 사회적 응집력의 요소로서 문화와 연계된 측면을 다룬다. 두 가지 모두 연계되어 있으며, EU 시민의 복지와 EU의 경제·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표현과 창조의 자유에 얽매인 공통의 가치로부터 비롯되고 반영된다.

창의·문화부문은 EU 노동력의 7.5%(1,200만 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약 5,09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하지만, 문화·시청각 활동과 사업자는 디지털 전환, 언어 장벽, 시장 분열, 중소기업(SME)의 만성적인 자금 조달의 어려움, 글로벌 경쟁 등 많은 도전과 장벽에 직면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유럽 의회, 이사회, 자문위원회 등 정부 부처들이 '창의 유럽'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 I. '창의 유럽' 프로그램

2007년 유럽의 문화 유산은 유럽의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과 유럽 문화유산을 보호, 개발,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14-2020 창의 프로그램'은 문화와 창의 부문의 개발과 창작자의 활동에 대한 장애물을 다루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글로벌 경쟁, 디지털화, 문화·창의 분야의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제도, 언어 장벽과 시장 분열을 초래하는 상이한 국가 간의 규제가 포함된다. 창의·문화 부문은 역동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 등으로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위한 '유럽 2020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창의 유럽' 프로그램은 문화와 창의 부문, 특히 시청각 부문(CCS)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들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1. EU 전역 및 국제적으로 CCS 기업의 운영 능력 지원
2. EU 내 또는 그 이후의 문화에 대한 더 나은 접근과 청중 개발을 통해 EU 전역의 예술인, 창작자와 문화 노동자의 작품 유통과 이동성을 촉진
3. 문화와 창의 분야의 중소기업의 재무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균형 잡힌 지리적 범위와 대표성 위해 노력
4. 혁신과 창의성 촉진, 정책 개발과 문화 수요자 확보, 새로운 비즈니스와 경영 모델에 초점을 맞추고 EU 전체의 정책 협력을 촉진

## II. '창의 유럽' 프로그램에 대한 유럽 의회의 시각

2017년 3월 2일, 유럽 의회는 '2014-2020 창의 유럽'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교육문화위원회가 의뢰한 두 개의 선행연구논문 「미디어 : 시행, 첫 경험」과 「문화 하위프로그램 : 새로운 프로그램 시행 첫 경험」이 결의안에 채택되었다. 결의안은 정책, 지정학적 위치, 경제적 중요성에 걸맞게 더 큰 재정적 수단을 요구했다. 의회는 위원회에게 예술가와 창의성에 좀 더 큰 비중을 두고 프로그램의 예술성과 경영 요소들 사이에서의 균형을 요구했다. 이어서 의회는 유럽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한 유럽 문화유산의 인증제도에 대한 더 높은 인지도를 요구했고, 유럽연합의 6개의 상과 함께 유럽의 연극상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의회는 행정과 규제 장애에 부담스러운 재정 요구로 인해 문화 관련 기업이 소규모로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계 소규모 업체에게는 일괄 지급과 정액제 상환과 함께 더 많은 예산을 문화 관련 프로그램에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의회에서 제시한 결의안은 창의 분야의 정책이 문화,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III. 유럽 이사회가 제시한 교육과 문화 부문의 ‘창의 유럽’ 프로그램

2017년 11월, 예테보리(Gothenburg)에서 열린 EU 회원국 정상 또는 정부의 비공식 회의는 교육과 문화에 초점을 맞췄다. EU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정치적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 프로그램인 새 지도자들의 의제의 첫 번째 주제는 교육과 문화 사이의 시너지뿐만 아니라 경제적 경쟁력과 사회적 응집과 포용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강조했다. 예술 분야의 젊은 전문가들을 위한 에라스무스와 문화 활동에 대한 학생 참여를 촉진하는 유럽 학생 카드를 제안하면서, EU 지도자들은 문화 분야에서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 증대와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 IV. ‘창의 유럽’ 프로그램에서 EU 자문회의의 역할

‘창의 유럽’ 프로그램의 규정은 EU 자문위원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2018년 12월 12일, 유럽경제사회위원회는 ‘창의 유럽’ 프로그램에 1억 8,500억 달러에서 1억 9,300억 유로의 예산을 증액하고, 시청각 부분(CCS)과 디지털 경제, 관광, 예술과 같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 부문에 8,000만 유로를 추가 지원했다. 지역 위원회는 2018년 9월 11일에 지역 협회 대표와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한 후 ‘창의 유럽’과 ‘문화를 위한 새로운 유럽 어젠다(Agenda)’에 대한 의견 초안을 작성했다. 2019년 2월 6일에는 20억 유로의 예산을 요구하는 의견을 채택했다. 문화정책과 문화와 창의 관련 산업에 지방과 지방 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대규모 문화사업과 지방과 지역차원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에 올바른 균형을 요구했다.

### V. 전국 의회의 ‘창의 유럽’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3개 의회는 ‘유럽의 창의 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독일 연방상원은 새로운 미디어 하위 프로그램에 어린이 관련 영화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는 EU의 시설과 다른 EU 기금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창의에 대한 프로젝트의 재정지원을 환영했으나, 예술가들의 독립은 정치적인 의제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하원은 일부 문화와 창의 분야 전문가들이 기금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우려했으며, 프로그램의 예산 50% 증액과 기금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영역 확대방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지역 문화, 언어, 방언 등을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르투갈 의원은 청년, 노동시장, 사회 이슈, 도시, 농촌·지역 정책, 디지털 혁신, 단일 시장 등과 같은 다른 정책 분야와의 시너지 가능성을 고려해 이 규제를 지지했지만 적절한 분야의 창의적 인재에 대한 지원도 지지했다.

## VI. '창의 유럽'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

문화 단체, 예술가, 활동가, 학계·정책 입안자로 구성된 유럽의 주요 네트워크인 CAE(Culture Action Europe)는 '2021-2027 창의 유럽 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 창의와 예술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사회적, 예술·문화적 목표를 강조했다. CAE는 문화 부문의 업무, 문화계 종사자, 조직의 확대를 위해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규모 문화단체와 신생 문화 사업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EU의 최소 80%의 공동 자금 비율을 요구했다. 문화계의 상호이해관계자들은 전체주의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른 정책 영역에서 문화를 주류화해 문화의 고유 영역을 확립하고, 수평적인 접근방식을 통한 공동 과제 해결, 회원국들에게 자금의 두 배 인상을 요구했다. 유럽문화예술연합은 많은 다른 EU 기금 프로그램에 문화·예술·유산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줄것을 요청했다.

IETM(현대 공연예술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sup>1</sup>은 예산 증액을 찬성했지만, 여전히 예산을 더 늘려야한다고 말한다. IETM은 10개 항목의 요청서를 통해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기금을 두 배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는 예술가들의 예술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는 기후 변화, 지역 개발, 국제 협력 등 다른 분야에 문화예술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청각 부문(CCS)부문의 국가 기금을 담당하는 정부와 유럽영화진흥청 감독협회는 2018년 5월초 MFF에서 발표한 CSS 부문의 예산 30% 이상 증액을 찬성했다. 그리고 외부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조치와 유럽 작품의 온라인 가시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1500개 이상의 공연 예술단체와 학제 간 라이브 예술 형식과 뉴미디어를 포함한 현대 공연 예술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 VII. 평의회

유럽연합 이사회문화문제위원회(The Cultural Affairs Committee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2018년 7월 2일 회의를 열어 규정에 대한 제안에 따른 영향 평가를 검토하고 '창의 유럽' 프로그램에 대한 초기 의견을 교환했다. 이 제안은 2018년 9월 4일 시청각에서 위원회와 대표단에 의해 검토되었다. 교육·청소년·문화·스포츠위원회는 11월 27일 개최한 회의에서 '2021-2027 창의적 유럽 프로그램'과 양성 평등, 다양성, 번역·자막과 같은 다양한 과제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창의 부문'의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조직의 유형과 자금 조달에 관계없이 시장성·비시장성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위원회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관련해 유럽 작품의 유통과 홍보뿐만 아니라 유럽콘텐츠의 혁신과 창조를 지원하기 위해 예술가와 전문가의 활동을 추가했다. 그 외에도 콘텐츠 부문에서 콘텐츠 제작, 유통, 수익화, 접근성, 디지털 변화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특정 부문에 할당된 예산을 문화 33%, 미디어 58%, 기타 9% 등 비율로 표현하고, 명확한 금액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유럽 영화 아카데미와 유럽 연합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보조금 적격성 심사제도를 배제하고 제3국에 설립된 창의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성 등 창조유럽위원회의 규정을 추가했다.

### 정책 제언

유럽 의회는 EU의 역할, 문화다양성, 문화유산 등을 보존하기 위해 '창의 유럽'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는 유럽의 문화 발전과 함께 유럽의 가치와 정의 등 유럽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유럽의 창의와 문화 부문은 유럽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사회적 측면에 기여했다. 이에 유럽은 정부기관들이 나서서 문화 행정, 재정, 규정들을 문화계 종사자와 기업들의 활동이 용이하도록 개선해나가고 있다.

# III

## 이달의 담론

문화 부문의 지식재산권 이슈와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논의

## 문화 부문의 지식재산권 이슈와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논의

### 들어가며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국제 사회에서는 디지털 재화의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하여 온라인 상에서의 비대면 만남 및 온라인을 통한 지식과 콘텐츠의 공유가 일반화·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형의 재화인 지식재산권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부여되는 독점배타적 권리인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에 대한 중요성도 더 높아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과 저작권(Copyright)으로 나뉘어지며,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이 포함된다. 각 각의 지식재산보호의 범 목적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산업재산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특허권의 보호는 기술 및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며(특허법 제1조), 저작권의 보호는 문화·예술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산업발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다(저작권법 제1조). 이 글에서는 현재 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에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중요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보호 면제 논의, 메타버스에서 지재권, OTT와 지식재산권 문제의 쟁점을 살펴보고,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지식재산권의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보호의무 면제 논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전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공급과 원활한 생산을 위한 논의의 중심에 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특허권의 기본 이념에 대한 논의로 신기술에 대하여 일정기간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특허권이 백신의 공급 및 생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지, 아니면 특허권 부여로 인하여 신기술에 대한 투자유인과 기술공개를 유도하여 백신의 공급 및 생산에 도움이 되는지의 문제이다.<sup>1</sup>

2020.3.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2020.10.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WTO/TRIPS 위원회에 코로나19 백신 등과 관련하여 TRIPS 협정의 일부 조항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일정기간 면제하는 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sup>2</sup> 2021.5.22.에는 기존의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면제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진단법과 치료제, 백신,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지재권 보호 의무를 최소 3년간 면제하지는 수정 제안(면제 대상과 면제 기간 제한)을 하였으며, 수정제안서는 인도와 남아공을 포함하여 WTO 62개 회원국이 함께 제출하였다.<sup>3</sup> 지재권 면제 제안서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등과 관련된 특허 뿐만 아니라, 저작권, 디자인, 영업비밀 보호의무 이행을 일정기간 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호 면제 권리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데, 저작권·디자인권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백신 공급의 확대라는 취지에서 벗어난 지나친 확대이며,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까지 면제하는 것은 기술탈취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같이 보호면제를 제안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도 광범위하지만 보호면제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도 광범위하다. 제안서의 보호 의무 면제 기술의 범위는 코로나19 백신의 개발을 위해 처음 적용된 신기술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예방·역학·치료에 관련된 모든 기술을 포함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 바이든 정부가 2021.5. 지지입장을 표명한 이후, WHO에서도 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나, EU나 글로벌 제약사들은 “백신 공급부족 사태는 글로벌 백신 제조역량의 문제이며 특허권 보호 의무 면제는 보건의위해 해법의 초점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지적권 보호 면제가 오히려 품질을 낮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유럽국가 및 백신제조 제약사들은 COVAX 등을 통해 저개발국을 위한 백신 물량 기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sup>4</sup>

WTO/TRIPS 위원회에서는 2021.6.8.~9. 공식회의, 2021.6.24. 비공식회의, 2021.7.20. 비공식회의, 2021.10.13.~14. 공식 회의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등에 대한 지적권 보호 의무 면제 관련 제안에 대하여 여러차례 논의가 이루어졌다. WTO에서 뿐만 아니라, WIPO 및 WHO와 함께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WTO/TRIPS 위원회에서 아직 코로나19 백신 등에 대한 지적권 보호 의무 면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합의에 도달하거나 결정을 내린 바는 없다.<sup>5</sup>

### 메타버스에서 지식재산 문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물리적 공간에 함께 모여 활동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가상공간인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새로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sup>6</sup> 메타버스 내에서 입학식, 세미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메타버스 내에서 콘서트, 공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은 2020년 신곡 'Dynamite'의 안무를 게임 플랫폼인 '포트나이트 파티로얄'을 통해 세계 최초 공개하기도 하였으며, 패션브랜드 발렌시아가는 'Afterworld: The Age of Tomorrow'라는 자체 비디오 게임을 제작하여 2021년 가을 컬렉션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를 나타내는 Universe에 '상위의, 뒤에, 넘어서'라는 의미를 가지는 접두어 Meta가 결합한 말로서, 1992년 스티븐슨의 과학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초기의 메타버스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주어지는 규칙에 의해 제한된 거래가 이루어진 반면, 현재의 메타버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별도의 생산 플랫폼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스스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이에 대한 수익을 현실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나아가 메타버스를 통해 건축, 자동차 등의 설계에 있어 시공간을 초월한 동시 협업이 가능해지는 등 놀이·소통 창구에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양방향으로 연동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리니지, WOW(비디오 게임) 등 온라인 게임으로 대변되는 초기 메타버스에서는 주어진 환경과 규칙 내에서 이용만 하였으므로 이를 둘러싼 지식재산 주요 이슈는 저작권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즉 메타버스의 본질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캐릭터나 상품은 시각적 저작물이지만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컴퓨터프로그램코드, 가상공간의 창작물은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타 시각적 미술작품처럼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았다.<sup>7</sup>

그러나 현재의 메타버스는 이용자가 직접 창작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라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제작 도구를 이용하여 창작자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메타버스 플랫폼 중 '네이버 제페토' 이용자는 제페토 STUDIO를 통해 만든 아이템을 판매하며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이에 메타버스 이용자의 창작물은 저작권법 보호대상인 창작물 이외에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인 화상디자인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유명 크리에이터의

아이디 등에 출처표시로서 신용이 형성되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대상인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메타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환경 구축에 활용되는 실제공간·구조물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 메타버스 이용자의 창작의 재료가 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공공저작물 DB 구축, 계약 및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메타버스에서 경제활동이 수반되는 새로운 이용형태를 보호하고, 현실공간 또는 가상공간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조율하고 규율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메타버스가 국경을 초월한 공간이라는 특이성으로 인하여, 등록 산업재산권의 속지주의 문제, 관련 법률의 역외적용 문제 등의 국제적 기준마련을 위한 검토도 필요하다.

### OTT서비스와 지식재산 보호

OTT(Over The Top)는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를 일컫는다. OTT는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범용 인터넷(Public internet)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으로 2000년대 중 후반부터 OTT서비스들이 등장하였다. 1997년 비디오와 DVD를 우편·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로 시작한 넷플릭스는 2007년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현재 글로벌 OTT 업체의 선두에 서 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을 시청할 수 있는 OTT서비스가 활발히 보급되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 되었고, 영화관이나 공연장에 갈 수 없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전세계 사람들에게 OTT 플랫폼은 더욱 일상생활에 가까워졌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제공되는 한국 콘텐츠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 흥행으로 넷플릭스 플랫폼을 통한 동영상 시청에 따른 수익 뿐만 아니라, 추가급등,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의 판매 등을 통한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알려진 바와 같이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제작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이후 <오징어 게임>에 대한 저작권 및 모든 권리를 독점하기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국내 제작사에게 돌아오는 추가수익은 없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콘텐츠 창작자에게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인 '저작권'이다.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넷플릭스가 100% 독점하여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넷플릭스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시즌2를 제작하거나 영화화나 해외 리메이크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한국 제작사에서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저작권 독점에 대하여 투자한 기업이 그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제작사는 '실비'만 받고 글로벌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기울어진 수익 구조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2021.11.3.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오징어 게임>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영상콘텐츠 제작사에게는 추후 저작권에 대한 권한을 모두 넘기더라도 넷플릭스의 투자를 받아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기회가 되는 것을 사실이다. 다만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거두가 막대한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수익 배분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정착되어야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맺는말

지식재산권은 지적창작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여 투자와 노력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한 권리이다. 이러한 보호와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신기술 개발이나 콘텐츠 창작 등에 대한 투자유인이 사라져 기술혁신이나 콘텐츠 생산이 저해되어 관련 산업발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언택트 환경이 일반화되어 글로벌 시장의 단일화가 가속화되고, 디지털 환경으로 인하여 재화 유통에

있어서 국경의 개념이 모호해 지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의 공동발전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위하여 국제사회 및 관련 산업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1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보호의무 면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심미랑,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보호의무 면제 논의동향 및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Focus 제2021-04호 (2021.06.22)” 참조

2 WAIVER FROM CERTAIN PROVISIONS OF THE TRIPS AGREEMENT FOR THE PREVENTION, CONTAINMENT AND TREATMENT OF COVID-19 (2 October 2020), IP/C/W/669; 언론보도에서는 본 제안서 상의 “waiver”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포기, 유예” 등의 여러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WTO에 제출된 제안서 상의 “waiver”는 TRIPS 규정 준수 “의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 “면제”라는 표현이 옳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지재권 보호의무 면제” 또는 “특허 보호의무 면제”, 이에 대한 약칭으로 “지재권 보호 면제”, “특허 보호 면제”, “지재권 면제” 또는 “특허 면제”라는 용어 사용

3 WAIVER FROM CERTAIN PROVISIONS OF THE TRIPS AGREEMENT FOR THE PREVENTION, CONTAINMENT AND TREATMENT OF COVID-19, REVISED DECISION TEXT (21 May 2021), IP/C/W/669/Rev.1

4 COVAX(COVID-19 Vaccines Global Access)는 코로나 19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이니셔티브로 저소득 국가에서 코로나19 진단, 치료 및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국제 자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NICEF, CEPI(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Gavi(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및 WHO가 공동으로 주도하고 있다(COVAX 홈페이지, <https://www.gavi.org/covax-facility> 참조, 2021.11.03. 최종접속)

5 WTO/TRIPS 위원회 논의자료는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rips\\_e/intel6\\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rips_e/intel6_e.htm) 참조 (2021.11.03. 최종접속); WTO의 의사결정(decision-making)은 반대의견이 없는 컨센서스(consensus)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WTO 설립협정 제9조 제1항), 예외적인 상황에서 회원국의 의무 면제 요청에 대한 사항은 회원국의 3/4의 찬성으로 결정한다(WTO 설립협정 제9조 제3항(b))

6 메타버스와 지식재산의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명섭, 메타버스와 지식재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Focus 제2021-06호 (2021.07.09.)” 참조

7 손승우, 가상세계에 대한 저작권법의 새로운 접근, 국제거래법연구 제19권 제2호 (2010), 251-252쪽





# IV

## What's On KCC abroad

### [재외한국문화원 11월 활동계획]

유럽, 미주, 아시아, 오세아니아

\* 다음 행사일정은 코로나19 여파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탈리아

### ○ 온라인 공연 : 모락모락의 <Shimmering Melody> 영상 게시

[11.04. | 문화원 유튜브]

- 2021년 온라인 공연 영상(콘텐츠) 공모 선정팀 모락모락의 전래동요 '자장가'를 재즈에 한국 전통 음악선법을 입힌 공연
- '사랑 자장가'와 'Of us' 등을 피리, 대금, 콘트라베이스, 태평소, 피아노 등의 악기로 연주

### ○ 한국문화 온라인 소개 : '너희들 이거 알고 있었니?' 카드 뉴스 제작과 게시

[11.11.~26. | 문화원 누리소통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빼빼로 데이와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커플들간의 100일 등 한국의 연인들에 대한 기념일 소개

### ○ 한글날 행사 '예쁜 한글 글씨 쓰기대회' 수상자 발표

[11.03. | 문화원 누리소통망]

- 한국시 3편 중 한 편을 선정해 '캘리그래피 기본쓰기' 또는 A4용지에 펜, 수채화 등 원하는 도구를 활용하게 그림과 함께 제출하는 '캘리그래피 아트' 대회
- 수상자 총 12명 선정 : 1등~3등 선정

### ○ 한국영화를 주제로 한 한국주간 행사 개최

[11.09.~14. | 문화원, 사피엔차 대학, 카사 델 시네마]

- 영화 상영, K-LAB 공개, 한류 관련 세미나 개최, 공연 상영, 에세이 대회 결과 발표, 쿠킹쇼 개최 등

### ○ SAC ON SCREEN 달래이야기 공연 상영 [11.10.~11.13. | 문화원 다목적홀]

- 한국전쟁을 겪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순수한 어린이의 눈으로 그리는 전쟁이야기
- 년버벌 인형극 '달래이야기'영상 상영

### ○ 온라인 공연 <From310의 숲에서 일 년 살기> 영상 게시

[11.11. | 로마, 로마호텔]

- 2021년 온라인 공연 영상(콘텐츠) 공모 선정팀 'From310'의 해금과 드럼 듀오 공연
- 피움(봄), 양청도드리(여름), 날아들다(가을), Winter Story(겨울), 숲 총 5곡을 소개

### ○ 한국문화 소개 온라인 뉴스레터 : 'Corea Today' 11월호 발간 배포

[11.08. | 문화원 공식누리집,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메일 뉴스레터]

- 공모를 통해 선발된 온라인 기자단과 일러스트들이 한국문화에 관한 기사를 매달 작성, 7,000여명의 문화원 뉴스레터 회원에게 배포
- 1. 한국과 정(情), 2. 금모으기 운동, 3. 한국의 스킨케어, 4. 나물, 5. 대리운전 등 5개 기사 게재

○ 하반기 온라인 한국주간 : ‘한국과 나’ 주제 에세이 대회 수상자 발표

[11.10. | 온라인]

- 이탈리아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이탈리아어·한글 에세이를 공모. 우수자 선정 수상자 발표
- 11.10. 발표예정

○ 유럽문화원장 회의 참석 [11.10.~13. | 러시아 모스크바]

- 문화부 장관 주관 유럽문화원장 회의 참석

○ 2021년 이탈리아 시니어 태권도 대회

[11.20. | 부스토 아르시치오 E-Work Arena 경기장]

- 이탈리아태권도협회와 공동으로 시니어급 태권도 겨루기 대회 개최, 우수자 상품 지원

○ 유튜브 영상 ‘당신이 바라는 한국(La Corea che vuoi tu!) 제13편 : 한국의 가을편 트레일러와 본편 영상 제작·게시 [11.15.~17. | 문화원 공식 누리집]

- 한국의 가을을 주제로 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탈리아인과 한국인이 한국의 현지 음식 소개
- 전라도의 관광지인 내장산, 군산, 순천만 습지공원 중 한국의 가을 경치 소개

○ 시에나 외국어대학교 ‘한국의 날’ 문화행사 개최 [11.17. | 시에나외국어대학교]

- 시에나 외국어대학교 한국학과 학생들의 한국시 낭송, K-Pop 경연대회 등의 문화행사 개최

○ <내가 사랑하는 한국> 영상 시리즈 제10편 영상 제작·게시

[11.24. | 문화원 공식 누리집]

- 한국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사람 10명을 인터뷰 또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으로 담아, 한국을 소개

○ 이탈리아 어린이들을 위한 한국전래동화 애니메이션화 제작

[11.29. | 문화원 공식 누리집]

- 이탈리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국 전래동화 『호랑이 형님』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 독일

- **드레스덴 재즈 페스티벌-재즈타게 2021 한국팀 공연**  
[11.01. | 드레스덴 오스트라 스튜디오]
  - 재즈 페스티벌 <재즈타게 2021>에 참가하는 한국인 재즈팀 공연 지원
- **11월 온·오프라인 한국문학클럽** [11.03. | 문화원 공연장, ZOOM 화상채팅]
  -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 개최하는 정기 문학프로그램, 한국문학 1편을 선정해 참가자들과 토론회 진행
- **SNS로 보는 한국문화** [11.08., 11.25. | 누리 소통망]
  - 11.08.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드라마
  - 11.25. 겨울과 한복
- **이영재x김도균 2인전 폐막식** [11.11. | 문화원 전시장]
  - 문화원 기획전 <이영재x김도균 2인전> 전시 폐막을 기념해 이정희 교수 강연회 개최
- **편혜영 작가 초청 한국문학행사** [11.12. | 문화원 공연장]
  - 편혜영 작가를 초청,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대담
- **제6회 베를린 시장배 태권도대회** [11.13. | 베를린 쇠네베르크 체육관]
  - 베를린시 지자체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배 태권도대회 행사 개최
- **외부자유기획:** [11.15. | 온라인, 베를린 UfaFabrik]
  - 11.15. 디지털 퍼포먼스 <미접촉 부족 - 전경>
  - 11.26. <동무이무 - 같은 무대 다른 춤>
- **제32회 베를린 동화축제 연계 한국동화행사**  
[11.16.~18. | 문화원 공연장, 누리 소통망]
  -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동화축제 베를리너 메르헨타게(11.4. -11.21)와 연계하여 한국동화를 주제로 구연행사 개최
- **평화통일을 바라본다** [11.16. | 할레시 올리히 공연장]
  - 독일 통일 31주년 공식 행사로 도시 할레시청과 공동 개최, 한델성악작품과 한국전통음악/무용 공연 제공
- **전문가 초청 한국영화 토론회** [11.18. | 누리 소통망]
  - 홍상수 감독 <밤의 해변에서 혼자> 영화를 주제로한 전문가 토론 개최



○ **제9회 통일희망 라이프치히 음악회** [11.20. | 라이프치히 알테 한델스비르제 공연장]

- 라이프치히 한인회와 공동으로 한인 음악가들의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지원하는 공연 개최

○ **한국문화가 있는 날 : 우/박 듀오** [11.25. | 문화원 공연장]

- 한국을 주제로 한 공모에 선정된 공연팀 정기 공연 개최

○ **기술기 개인전** [11.25.~12.31. | 문화원 전시장]

- 2021년도 문화원의 마지막 기획전, 기술기 작가의 작품 전시

○ **오디오로 떠나는 한국여행** [11.30. | 누리 소통방]

- 한국문화를 오디오곡으로 소개하는 클립 시리즈

- 독일의 국악 전문가 Matthias Entrel가 소개하는 한국 전통국악 입문 오디오 클립 송출 예정

## 영국

○ **하우스콘서트 연말 공연** [11.05. | St James's Church, Piccadilly]

- 왕립음악원 한인 연주자가 소속된 3팀의 공연

○ **제16회 런던한국영화제** [11.04.~07. | 런던 시내 극장]

- 영화 <모가디슈>, <혼사 사는 사람들>, <계춘할망>, <죽여주는 여자>, <최선의 삶>, <자산어보> 상영

○ **서울 미식주간 협력 온라인 한식 강좌** [11.03.]

- 서울 미식주간과 공동으로 정관스님을 강사로 온라인 한식 강좌 진행, 두부를 재료로 한식 시연 예정

○ **K-뮤직페스티벌** [11.06. | 사우스뱅크 퍼셀룸]

- 11.06. #6. 달음의 공연

- 11.08. #7. 달음의 동연

○ **제20기 K-팝 아카데미** [11.01.~11.27. | 맞춤 문화기관]

- K-Pop으로 인해 영국 한류 팬을 위한 10주간 한국문화 전반 소개, 한국영화 관련 신치윤 박사의 강의 진행

## 프랑스

### ○ 안은미 <1분59초> 공연 [11.05.~06. | 문화원]

- 파리시립극장 초청안무가 안은미와 공동으로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 개최, 파리와 몽펠리에에서 총 100여 명의 현지인을 대상으로 환경을 주제로 하는 창작무용 워크숍과 결과발표회 개최

### ○ 한글 특별전시 [11.01.~15. | 문화원]

- 세종대왕의 철학과 예술이 반영된 한글을 조형적으로도 해석한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의 작품 특별전
- 시각디자인, 패션, 제품 등을 통해 재해석한 한글의 매력 소개

### ○ 대한민국 예술원 미술전 [11.01.~15. | 문화원]

- 1954년 창설되어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원 미술전 개최
- 김환기, 서세옥, 최종태, 이신자 작가 등 한국을 대표하는 근현대 작가 28명의 작품 소개

### ○ ‘고사리 손’ 태권도 아틀리에 [11.03. | 문화원]

- 정우민 국기원 사범을 초청해 방과후 학교 어린이 12명 내외 대상으로 태권도 아틀리에 개최

### ○ 벨빌 영 보졸레 미디어테크 내 한국문화 축제

[11.01.~10. | 벨빌 영 보졸리 미디어테크]

- 프랑스 중남부에 위치한 도시인 벨빌영보졸레시의 미디어테크에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 개최
- 관광공사 파리지사와 공동으로 한국 소개 전시, 판소리 공연, 한국문학 소개 컨퍼런스, 한국의 역사와 한국 사회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 태권도 시범공연 등 프로그램 마련

### ○ 이정주 <줄 재즈> 콘서트 [11.08. | 문화원]

- 거문고 연주자 이정주와 기타리스트 제프 코르벨 (zol) 듀오의 공연

### ○ 안은미 프로젝션 매핑 전시 [11.10.~15. | 문화원]

- 지난 20년 개최된 국립현대미술관 안은미 특별전에서 소개되었던 다양한 영상들을 편집해 오디오리움 내 매핑 전시 개최

### ○ 드라마 파티 [11.13.~21. | 온·오프라인]

-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 한국 드라마를 마라톤 상영하는 행사
- 11.13. <헨스>
- 11.21. <낭트>
- 11.28. <낭시>

○ **몽펠리에 한국문화축제 <Coree d'Ici> [11.10~26. | 몽펠리에 주요 문화예술 기관]**

- 환경과 지속적 발전이라는 주제로 개최,
- 세종국악관현악단의 공연, 전시, 컨퍼런스, 아틀리에, 한식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소개

○ **몽펠리에 <한국문화 상자의 여행> 전시회 [11.10~26. | 몽펠리에]**

- 국립민속박물관이 제작한 한국문화박스 지방순회전시 개최
- 낭트 코스모폴리스 전시와 라로셀 자연사박물관에 이어 몽펠리에에서 한국문화 상자를 소개하고 한국문화박스 콘텐츠 체험행사 마련

○ **한글 특별전시 [11.01.~15. | 문화원]**

- 세종대왕의 철학과 예술이 반영된 한글을 조형적으로도 해석한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의 작품 소개하는 특별전 개최해 시각디자인, 패션, 제품 등에서 재해석한 한글의 매력을 프랑스 소개

○ **서미애 작가와의 만남 [11.15. | 문화원]**

- 서미애 작가의 『잘자요 엄마』 출간기념회 개최

○ **사물놀이 교육 공연 [11.17. | 문화원]**

- 방과후 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사물놀이 교육 공연 개최

○ **SAC on screen 상영회 [11.16.~19. | 문화원]**

- 서울예술의전당에서 제작하는 SAC on screen 공연 영상 시리즈 상영
- <정크>, <스냅>, <라바야데르>, <웃는남자> 4개 작품 상영

## 폴란드

○ **제7회 바르샤바 한국영화제**

[11.5.~10. | 키노테카 영화관(Kinoteka), MOJEEKINO 플랫폼]

- 11.5. 개막식, 홍상수 감독의 <인트로덕션>(2021) 작품 상영, 관계자 환영사
- 영화 <올해의 발견>, <Hits in Recent Years>, <윤여정 회고전>, <미나리>, <죽여주는 여자>, <찬실이는 복도 많지> 상영

○ **뮤지컬 <마리퀴리> 상영회와 체험행사**

[11.06.~07. | 키노테카, 문화원, 바르샤바 마리퀴리박물관]

- 11.06~07. 뮤지컬 상영회

- 11.01.~12.31. 뮤지컬 마리퀴리 포토존
- 11.06.~12.31. 마리퀴리 한국 코너 - '21.11.6-'22-4.30/바르샤바 마리퀴리 박물관

○ **세종학당 한국어 강좌** [11.01.~19. | 누리 소통망]

- 2021 세종학당 가을학기 한국어 강좌 정규반 및 특별반 운영

○ **한국어 카드뉴스** [11.01.~12.31. | 온라인]

- 한국어 학습 온라인 콘텐츠 프로그램 진행

○ **<한국 젊은 작가: 수목놀이>전 개최** [11.01~26. | 문화원]

- 전시 영상 콘텐츠 공개(2차)

○ **2021 한-폴 현대예술 교류 프로젝트 <Wandering the Soundscape>**  
[11.22. | 크라쿠프 재즈 페스티벌, 온라인]

- 한-폴 양국 연주자들이 선보이는 즉흥연주 영상 3편과 연주자 인터뷰·도시 전경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 크라쿠프 재즈 가을 페스티벌 (영: Krakow Jazz Autumn Festival, 폴: Krakowska Jesień Jazzowa) 상영

## 러시아

○ **문화원 이전 개원 기념 행사 : SNS 이벤트** [11.01~11.31. | 문화원, 누리 소통망]

- (11.1.~11.21.) 문화원, 파트너기관(국제디자인 아카데미 IAD) 홈페이지 및 SNS
- #1. 한국문화원의 문자 그래픽과 캐릭터 공모전 '지속'
- #2. 축하메시지 행사 <지속>

○ **2021 한-러 온라인 독립영화제** [11.01.~04. | 누리 소통망]

- 한-러 상호교류의 해 계기 한국의 우수독립영화(8편), 러시아의 우수독립영화(4편) 온라인 상영회 개최

○ **맛있는 한국-김치활용음식 조리영상**

[11.01.~17. | 문화원 공식 누리집, 누리 소통망]

- <맛있는 한국> 한식 조리영상 시리즈의 3번째 편, 김치와 길거리음식에 이어 김치활용음식을 주제로 5가지의 한식조리 영상 송출

○ 한글날 기념 행사 '모스크바, 한글 꽃이 피었습니다' [11.01.~11.30. | 문화원]

- 한글날 기념 강병인 작가 작품 30여 점 전시

○ 주러시아 한국문화원 이전 개원식 [11.12. | 문화원]

- 주러시아한국문화원 국유화 건물 이전 후 공식 개원 기념행사 개최  
- 전시회,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 유럽권 재외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 [11.11.~12. | 문화원]

- 유럽권 재외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 개최

○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문화포럼 [11.11.~13. |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таж 신관]

- 제9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문화포럼 한국 주빈국 자격으로 참가, 문화원 -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코디네이팅 지원

○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폐막공연 [11.13. | 마린스키 극장 2]

-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폐막공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문화포럼 일환으로 개최 예정. 마린스키 극장 2(신관, 1,800석)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총 객석의 70% 사용 예정

○ 한국가요 경연대회 [11.10.~30. | 온라인]

- 전 러시아 대상 한국 가요 경연 대회 개최

○ 한국 현대시 특강 [11.24. | 온라인]

- 주빈국의 현대시의 시대 별 경향, 작품 소개

## 스페인

○ 오감도: 한국미술의 다섯 풍경 [11.01.~30. | 누리 소통망]

- 2021 트래블링 코리아안 아츠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되는 전시로, 회화·사진·조각·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5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한국현대미술의 새로운 '한국상'을 제시하는 온라인 전시 개최

○ **책은 한껏 아름다워라 : 한국의 정물화 책거리**

[11.01.~12. | 주스페인한국문화원, 온라인 전시관]

- 주프랑스문화원 전시 연계, 전통 책거리 정물화에 기반을 두고 책거리를 충실하게 모사하거나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현대민화작품 전시

## 터키

○ **한국문화주간 : K-문학 세계화** [11.03~05. | 온라인]

- 주요내용: 주재국내 한국문학 관심자들, 출판사, 작가, 번역자, 편집자 등을 대상으로 양국 문학 작품 소개 및 작가와의 만남, 매치메이킹 프로그램 진행

○ **개원 10주년 기념 한-터 우정의 합창단 음악회** [11.04. | 오프라인]

- 한-터 우정의 합창단 공연 및 현지 음대 교수로 구성된 Golden Horn Brass 금관5중주팀 협연 추진

○ **개원 10주년 기념 전통·현대 퓨전 공연** [11.05. | 온라인]

- 문화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여 타악, 무용, 비보이, 태권도 시범, 패션쇼 등 퓨전 공연 개최

○ **K-Food Festival** [11.06. | 오프라인]

- 주재국 내 한국문화 관심자들 및 주요 인사들 대상으로 김치 만들기 체험, 한국 음식 체험 부스 운영

○ **백제역사유적지구 사진 전시회** [11.08.~27. | 문화원]

- '백제역사유적지구, 문화의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 유산적 가치를 담은 사진 작품 전시

○ **미디어아트 사업** [11.15.~22. | 이스탄불 갈라타타워]

- 터키문화원 개원 10주년 계기로 터키 내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이스탄불 갈라타 탑에서 3D 프로젝션 매핑 행사 개최

○ **제1회 믹타영화제** [11.24.~28. | 오프라인]

- 믹타 5개국의 각 대표영화 상영회 개최

○ **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 K-Pop 왕중왕전** [11.27. | 이스탄불 공연장]

- 역대 문화원 K-Pop 행사 수상자들을 초대하여 보컬 및 댄스 부문 왕중왕전 개최

○ **개원 10주년 기념 K-Pop 아이돌 그룹 콘서트와 팬미팅**

[11.27. | 이스탄불 공연장]

- 문화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여 K-Pop 아이돌 그룹을 초청하여 콘서트와 팬미팅 개최

## 벨기에

○ **2021년 한식콘테스트** [11.05. | 문화원]

- 우리의 전통 발효 재료(김치, 장 등)를 활용한 음식 콘테스트를 진행해 우승자에게 700유로(약 97만원)의 상금 수여

○ **한-벨 수교 120주년 기념, Bright Festival 하석준 <수도자> 전시**

[11.01.~06. | 브뤼셀 시내]

- 한-벨 수교 120주년 기념, 현지 문화 축제 Bright Festival에 한국 미디어 아티스트 하석준 참가, 브뤼셀 시내 <수도자> 작품 야외 전시

○ **<나를 방황하게 하는 것들> 전시** [11.01~30. | 문화원]

- 한-벨 수교 120주년 기념, 현지 문화 축제 Bright Festival 협력, 한-벨 미디어 아트 전시

○ **K-Pop 아카데미 사업 : Alors On Chante Korea** [11.05. | 누리 소통망]

- 재벨 방송인 '줄리안' 과 함께 만나는 K-POP 이야기, 총3화로 구성된 영상콘텐츠 시리즈로, K-Pop 뿐아니라 한국의 판소리, 조선팝등 다양한 한국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

- Episode 1. 줄리안의 K-Pop 이야기(11.15.)

- Episode 2. 국악과 조선팝 그리고 K-HOUSE(11.12.)

- Episode 3. 벨기에 내 K-Pop 그라고 한국문화원(11.19.)

○ **세종학당** [11.01.~31. | 온라인 줌(ZOOM)]

- 10개 반 구성, 수강생 220명

○ **문화강좌 : 서예·한지·공예·장구** [11월 | 온라인 줌(ZOOM)]

- 서예반 24명 수강, 한지공예반 10명 수강, 장구반 10명 수강

○ **뮤직샤펠 협력공연 <아놀드 트리오>** [11.30. | 문화원]

- 벨기에 최고권위 클래식음악 기관인 퀴엘리자베스 뮤직샤펠과 한국문화원 공동 기획으로 아놀드 트리오 (Arnold Trio) 콘서트 개최

## 미주

### 미국-워싱턴

○ **김치 유니버스 시리즈 : '김장 편' 영상물 제작**

[11.03.~04. | 메릴랜드주 주지사 관저]

- 김치의 역사를 현지인과 세계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김치 홍보 영상물 제작, 영상물을 상영
- #4. 유미호건 메릴랜드주 주지사 부인 김장 영상

○ **한국어 강좌 : Korean Language & Culture Classes**

[11월 중 | 문화원 공식 누리집]

- 가을학기 총 16개 강좌(초급반 9, 중급반 5, 고급반 1, special topics 1), 일주일 1회, 189명 수강

○ **2021 온스테이지 코리아 <악단광칠 콘서트> 개최** [11.16. | 앤더슨 하우스(미정)]

- 현지 THIS for Diplomats기관과 공동으로 유망한 예술단체와 한국의 음악을 소개하는 문화적 교류 행사를 개최

○ **버지니아 미술관, <Korean Art in the U.S.>** [11.19. | 누리 소통망]

- 버지니아미술관 한국실 전시와 대표 소장품 약 10점 온라인 소개

○ **K-Cinema at Home 영화 <퍼펙트맨> 상영** [11.22.~28. | 문화원 누리 소통망]

- 문화원 정기 한국영화 상영회



## 미국-뉴욕

### ○ 한국 대표배우 200인 사진전 <THE ACTOR IS PRESENT>

[11월 중 | 문화원 갤러리 코리아]

- 뉴욕문화원과 한국영화진흥위원회 공동기획으로 지난 10년 간, 한국 영화와 독립영화의 기여도, 국내외 수상자 등을 배경으로 남성 배우 100인, 여성 배우 100인 총 200여 명의 인물사진과 한국영화의 역사 소개
- BTS가 뉴욕한국문화원을 깜짝 방문한 이후, 전시 관람예약이 증가해 관람객을 배려목적으로 전시 기간 연장

### ○ 뉴욕한국문화원 x 예술의전당 연극 <여자만세> [11.19. | 온라인]

- 예술의전당의 SAC On Screen 공연 작품 중 연극 <여자만세> 공연 상영

### ○ 뉴욕한국문화원 x 해외문화홍보원 <Enjoy K-arts> [11.16. | 온라인]

- #11. <음악동인 고물> 공연 홍보

### ○ 팝파핑 코리안 (PopPopping Korean) [11.16. | 온라인]

- 실생활 회화 한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영상인 팝파핑 코리안 시리즈를 매주 1편 온라인 상영
- Episode 39.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 ○ <Korean Movie Night at Home: 시대극 영화 특별전> 개최

[11.15.~30. | 문화원 공식 누리집]

- 한복을 주제로 시대극 장르 영화 중 우수 작품을 선정, 소개

### ○ K-Pop Song & Dance Online Competition 개최

[11.10.~30. | 문화원 공식 누리집]

- 한류의 대표적인 K-Pop을 통해 한국 문화와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자 온라인 특별 프로그램 기획

### ○ 집에서 즐기는 한국문화 : <한국 사찰음식 요리 시연> 동영상 상영

[11.01.~30. | 문화원 공식 누리집]

-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작 우수 한국 사찰음식 요리 시연 동영상 현지인들에게 소개, 동영상 4~5편 상영

## 미국-LA

### ○ 악단광칠(ADG7) 미국 순회 공연 [11.03.~08. | 오프라인]

- 미 현지인들에게 한국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악 퓨전 그룹 '악단광칠(ADG7)'을 초청, 미국 순회공연 개최
- #1. 11.3. 월셔 이벨 극장
- #2. 11.5. Edmonds Center for the Arts
- #3. 11.7. Portland'5 Center for the Arts
- #4. 11.8. KEXP Studio

### ○ Korean Cuisine Series [11.04.~18. | LA Harbor College]

- LA 현지에서 유명한 푸드트럭 셰프와 함께 LA Harbor College에서 한식소개, 요리학교 학생들과 한식요리체험 기회 제공

### ○ 2021 온라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입상자 발표 [11.04. | 온라인]

- 미국 내 세종학당 수강생과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알리고, 한국어 학습의욕 강화와 자신감 고취, 한글 관련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인 한류 확산 기반 확보

### ○ 제17회 KAFA 미술상 공모전 수상자 전시 [11.05.~19. | 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

- 카파미술재단과 공동으로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 곽영준 작가의 작품 전시
- 11.05. 전시 오프닝
- 11.09. 아티스트 토크

### ○ 2021 영어로 배우는 국악기 시리즈 온라인편 [11.10.~24. |

문화원 공식 누리집, 유튜브(You Tube),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 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국악기에 대한 설명과 연주는 물론 전공자들이 수련하는 과정 등을 재미있게 구성, 총 8편을 제작
- 11.10. #5. <아쟁>
- 11.24. #6. <피리>

### ○ K Story '은혜같은 두꺼비'상영 [11.26. |

문화원 공식 누리집, 유튜브(You Tube),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 한국의 전통 전래동화를 현대적인 그림과 영어로 번역, 외국인들이 전래동화를 통해 한국문화를 배우는 기회 제공

### ○ 가을학기 오프라인 한국어강좌(총 5개반) 종강 [11.01.~30. | 문화원]

- 미 현지 일반인 대상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 총 5개반(초급 3개, 중급 2개)

## 캐나다

- **K-Academy문화강좌 : 해금, 장구춤, K-Pop, 전통무용**  
[11.01.~06. | 문화원, 온라인 줌(ZOOM)]
  - 오프라인 : 해금, 장구춤, 온라인 : K-Pop
- **한국어 강좌** [11.01.~05. | 온라인 줌(ZOOM)]
  - 초·중급 한국어 강좌
- **전세계 대사배 온라인 태권도 품새대회 결선** [11.01.~16. | 온라인]
  - '제2회 캐나다 대사배 온라인 태권도 대회' 입상자들이 '제3회 태권도 품새대회 세계결선' 참여
-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태권도해외활성화사업)** [11.02.~03. | 캐나다 오타와]
  - 현지 학교 대상 태권도 온라인 강좌 진행
- **K-Food Series 한식 소개 영상 1편 상영** [11.01.~30. | 온라인]
  - 캐나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K-Food 한식 소개
  - #1. <갈비찜>
  - #2. <감자탕>
  - #3. <닭볶음탕>
- **현지 방송사 연계 한식 소개 프로그램 촬영** [11.05. | 온라인]
  - 캐나다 현지 방송사와 인플루언서와 연계해 한식 소개프로그램 정규 방송 송출
- **한식 웹툰 『곰곰이의 한식 여행』 연재** [11.01.~ 02. | 캐나다 전역]
- **악단광칠 ADG7 공연** [11.21. | 캐나다역사박물관]
  - 악단광칠 공연 팀을 초청해 현대식으로 해석한 전통음악 소개
- **2021년 11월 케이시네마 온라인 상영회**  
[11.24.~30. | 온라인 플랫폼 비메오(VIMEO)]
  - 한국 영화 온라인 상영회 개최 (상영 영화 미확정)
- **비대면 작가스튜디오 탐방 8 : 김진영 작가편** [11.25. | 온라인]
  - 김진영 작가의 토론토 작업실을 방문해 작가의 최근 근황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
- **Korey와 Canver의 한국문화** [11.30. | 온라인 줌(ZOOM)]
  - 어린이를 위한 한국 전래동화 구연과 만들기 프로그램 제공

## 브라질

### ○ 온라인 태권도 강좌 [11.04. | 문화원 유튜브(You Tube)]

- 브라질 현지 태권도 수련생과 일반인 대상 중급 발차기 교육

### ○ 한국 문화 체험 강좌 [11월 중 | 온라인 줌(ZOOM)]

- 문화원 내 정규 한국 문화강좌, 한글 캘리그래피와 한국 전통 공예 강좌 운영

### ○ <제3회 우리술 카테일 경연대회 & 우리술> 전시회

[11.13.~30. | 주브라질 한국문화원]

- 전통주의 맛, 향, 색을 즐길 수 있는 전시와 시음회를 통해 전통주를 현지에 널리 알리고 동시에 현지 시장개척을 위하여 전통주의 역사와 전통 등 우리 술에 대한 특별한 한국문화 소개

### ○ 김치 전시 체험관 [11.13.~30. | 주브라질 한국문화원]

- 11월 22일 김치의 날 계기로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 문화 계승시키고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김치 전시와 김치 요리 시식 체험관 운영

## 아르헨티나

### ○ 한국 문학 출판 지원 오리엔테이션 [11.04. | 문화원]

- 아르헨티나 현지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국 문학과 비문학 번역, 출판지원 프로그램 소개

### ○ 2021 하반기 온라인 한식 강좌 운영 [11월 중 | 온라인]

- 현지인들 대상 주 1회 다양한 한식 요리강좌 진행 11주차

- 주제 <된장국> 강사: 오영민

### ○ 11월 온라인케이팝 댄스강좌와 온라인 콘테스트

[11.11.~30. | 문화원 유튜브(You Tube)]

- 현지인 대상으로 K-Pop을 통한 한국문화 소개, 한류총 확산 목적 케이팝 댄스 강좌 콘텐츠 제작 및 게시 (월 2회)

- 11.11. MONSTA X-Love Ki;lla

- 11.25. IU-LILAC

○ **온라인 태권도 강좌** [11월 중 | 문화원 유튜브(You Tube)]

- 국기원의 태권도 품새영상 활용, 스페인어 자막 이용

○ **2021년도 2학기 온라인 한국어 강좌 운영**

[11.01.~30. | 세종학당 공식 누리집, 온라인 줌(ZOOM)]

- 실시간 화상강의 진행, 만 18세 이상 현지인으로 구성
- 2학기 제 : 초급 6개 레벨, 6개반 운영
- 3학기 제 : 초급 5개 레벨, 19개반 운영

○ **2021년도 한국어 특별강좌 운영** [11월 중 | 온라인 줌(ZOOM)]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 경찰 대상 직업군 특성에 맞춘 실용적인 한국어 교육 제공

○ **하반기 문화강좌 운영** [11.01.~27. | 온라인 줌(ZOOM)]

- (8.9~11.27) 온라인 수업(ZOOM)
- 현지인 대상 한국문화 보급과 이해도 제고, 한국무용, 한국노래, 태권도, 한류 등 5개 문화강좌 개설

## 아시아

### 일본-도쿄

○ **제34회 도쿄국제영화제 제휴기획 : 온라인 코리안 시네마 위크 2021**

[11.02.~07. | 온라인]

-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집에서도 최신 한국영화를 즐기고 한국영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독립영화 온라인 상영
- 총 6편 : <담보>,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형거>, <내겐 너무 소중한 너>, <최선의 삶>, <아이들은 즐겁다>

○ **온라인 한국요리교실**[11.03.~30. | 온라인]

- 도토리묵 레시피와 요리 동영상 공개, 그에 따른 요리 사진과 감상문 콘테스트 진행

○ **11월 심쿵 코리아의 달 : 한국공연단 파견**

[11.02.~03. | 웨라톤 그랜드 도쿄 베이 호텔]

- 11월 한 달을 한국 월간으로 정해 한국을 테마로 각종 이벤트 진행, 한국의 전통공연, 풍물놀이, 한국드라마 OST 연주 등 행사 마련

○ **연말연시 특별기획 온라인 한국문화 공연 : 한국 드라마 OST콘서트 <Special>**  
[11.12. | 온라인]

- 한국 드라마 OST를 클래식으로 연주, 총 4곡 공연

○ **Challenge Art in Japan 2021** [11.11.~30. | 갤러리 미, 사랑방]

-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미술학도를 소개, 일본에서 유행 중인 한국인과 일본인 재학생의 국제교류전 개최 올해로 9회째 운영

○ **온라인 한국영화 기획상영화 : 코미디 특집** [11.16. | 온라인]

- #1. 11.16. 제1회 상영작품 <굿바이 싱글>  
- #2. 11.25. 제2회 상영작품 <내안의 그놈>

## 일본-오사카

○ **Esports 한일 교류전** [11.06. | 문화원 공식 누리집]

- 배틀그라운드 국가대항전, 혼합전, 팀 랭킹전으로 한-일 양국 온라인 생중계

○ **<한국 공예의 세계 2 - 규방공예> 전시** [11.01.~06. | 문화원 미리내 갤러리]

- 한-일 양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규방 공예 작가의 작품을 전시를 통해 일본에 규방공예의 아름다움과 작가에게 전시의 기회 제공

○ **2021년도 <K컬처 아카데미>** [11.01.~20. | 문화원 누리홀]

- 총 11개 문화강좌로 한국민화, 가곡, 보자기&매듭 등 프로그램 운영  
- 11.01.민화, 11.02. 가야금, 보자기&매듭, 11.06. 한지공예, 11.07. 장구, 태권도  
- 11.15. 가곡, 11.16. 가야금, 보자기&매듭, 11.17. 무용, 11.20. 한지공예

○ **2021년도 7월 학기 <세종학당 한국어강좌> 운영**  
[11.02.~30. | 세종학당 강의실]

- 총 21개 강좌 운영(초·중·상급반), 174명 수강

○ **<BTS와 함께 배우는 한국어 특별강좌> 운영** [11.05. | 세종학당 강의실]

- BTS 영상콘텐츠를 활용해 한국 여행이라는 주제로 한국어 강좌 진행, 90분 강좌  
- 총 12회 진행

○ **한국 애호 사진가 후지모토 다쿠미 사진전** [11.12.~30. | 문화원 미리내갤러리]

- 마이니치신문 수여 도문 겐상 수상자인 후지모토 다쿠미 작가의 50년에 걸친 한-일 교류사 작품 약 60점 전시

○ **문화세미나 <오사카 한국문화 살롱> 시즌2 : <한국문화의 조력자>**

[11.21. | 나렛지살롱 프레젠테이션라운지(오사카시 기타구 소재)]

- 일본에서 한국 관련 행사의 진행 및 통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후루야 마사유키, 유미 등 3인을 초청, 한일 문화 차이와 이해 심화를 위한 토크 개최

○ **SAC on SCREEN 사업 일환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 상영**

[11.20. | 문화원 누리홀]

- 예술의 전당 협업사업 SAC on SCREEN 일환으로 2021년 전주국제영화제의 초청작으로 '스테이지 무비'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 연극

○ **찾아가는 한국문화** [11.20. | 데즈카야마학원고등학교(오사카시내)]

- 데즈카야마학원고등학교 2학년 약 30명 대상으로 K-Pop 커버댄스 체험 강좌, 한국문화원 활동 소개

○ **제7회 오사카한국영화제** [11.26.~28. | 나렛지시어터]

- 일본에서 미개봉된 한국영화 상영, 코로나19 방역으로 관객 입장 190명으로 한정

## 중국-북경

○ **제9회 한중미술협회 정기전** [11.05.~26. | 문화원 1층 예운갤러리]

- 재중한인미술협회, 국제예술교류협회 등 한국 작가 40명의 회화, 사진, 조각 등 40여점 전시

○ **한중학생예술교류전 <OUT OF THE BOX>**

[11.05.~18. | 문화원 지하 1층 공연장]

- 재중한인미술협회 학생분과 한중 학생 18인의 사진, 회화 등 45점 전시

○ **대한민국 개천절 및 국군의 날 리셉션 문화공연** [11.14. | 광저우 하이아트호텔]

- 개천절 기념식 및 삼고무, 년버벌 난타, 미식체험 행사 개최 등

○ **서화예술교류전** [11.29.~30. | 문화원 지하 1층 전시장]

- 대한민국공공미술협회와 증명현문화발전유한공사 작가 24명, 작품 80여점 전시

○ **예술의 전당 우수영상 상영회** [11.24. | 문화원 지하 1층 공연장]

- 년버벌 <스냅> 공연 영상 상영회 개최

○ **한국영화 정기상영회** [11.22.~24. | 문화원 지하 1층 공연장]

- 공포 영화 특집 <클로젯>, <사자> 상영

## 인도

○ **한국-인도 우정 온라인 퀴즈 경연대회** [11.01.~10. | 온라인]

- 문화원 공식 누리집에 있는 한국 소개 코너와 해홍원 발간 『Facts About Korea』책자를 소재 중고등학생 대상 한인도 친선 퀴즈 경연대회,
- 1차 웹 사이트 퀴즈, 2차 및 3차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한 퀴즈 형식, 학교별, 도시별, 전체 국가 우승자 시상
- 11.08. 준결승전, 11.10. 종결승 예정

○ **허왕후 뮤지컬 공연** [11.03. | 아오디아(허왕후 기념공원 소재)]

- 허왕후 기념공원 완공 기념으로 허왕후 설화에 기초한 뮤지컬 공연 개최

○ **제4차 온라인 한국어 입문반 강좌** [11.01.~30. | 온라인]

- 한국어 자.모 및 기초 문법 강의, 영어 2개반과 힌디어 2개반 운영
- 4개반(주중2개반, 주말2개반, 총1,200명)

○ **문화원 세종학당 2021년 2학기 강좌** [11.01.~30. | 온라인]

- 문화원 세종학당 2021년 2학기 12개 정규반(주중5개반, 주말7개반, 총271명) 운영

○ **인도학교 한국어 정규반 강좌** [11.01.~30. | 온라인]

- 한국어 초급 문법과 한국문화 강의
- 15개 학교 (18개반, 607명)

○ **인도학교 한국어 취미반 강좌** [11.01.~30. | 온라인]

- 한국어 초급 문법과 한국문화 강의
- 6개 학교 (9개반, 293명)



○ **2021 전인도 K-Pop Contest** [11.27. | 문화원 유튜브(You Tube)]

- 인도 전역의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예선 우승자들의 파이널라운드(본선) 진행,  
보컬 20명과 댄스 20명

○ **제4차 온라인 한국어 입문반 주말반 수료식** [11.28. | 온라인 줌(ZOOM)]

## 인도네시아

○ **국립남도국악원과 인니 대중가수 공연 <흥겨운 선율과 아름다운 춤>**

[11.06. | 케이블TV와 유튜브(You Tube)]

- 지역 우수 전통공연 사업을 기념해 남도국악원 공연과 인니 대중가수 공연 녹화 방송

○ **K-Pop 아카데미 종강식과 작품발표회** [11.06. | 롯데에비뉴]

- 댄스커버 강좌 종강식과 수강생 작품 발표회 개최

○ **한국의 탈 온라인 VR전시회** [11.01.-26. | 문화원 공식 누리집]

- 한국의 전통탈 30점의 사진과 영상을 3개국어(한국어, 영어, 인니어)의 해설로 가상 전시  
개최

○ **공공외교행사, 독도 주제 글짓기 및 사상대회** [11.12. | 롯데에비뉴]

- 독도, 동해안 주제 그림과 글짓기 대회

○ **발레 <심청> 비대면 방송** [11.19. | 문화원 공식 누리집]

- 예술의 전당에서 제공하는 발레 <심청> 공연 영상을 문화원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방영

○ **<제주-발리> 사진전** [11.19. | 발리]

- 주재국민들이 좋아하는 한국관광지 제주와 인니 관광지 발리에 관한 사진과 영상  
70여 점을 전시

○ **전통 떡 만들기 시연회 및 소외계층 떡 체험행사** [11.27. | 스튜디오 아몬드]

- 한국 전통 떡 홍보를 위해 스튜디오에서 떡 만들기 시연회 개최, 소외계층 대상  
떡 체험행사 진행

○ **한류콘텐츠 경연대회 ‘별별스타’ 연말결선대회** [11.27. | 롯데에비뉴]

- 한 해 동안 인기 전역에서 개최된 K-Pop커버, 태권도 등 한류 콘텐츠 경연대회 ‘별별스타’개최, 지역예선 입상자들을 초청해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행사

## 베트남

○ **한복 체험 프로그램** [11월 중 | 페이스북(Facebook), 하노이]

- 한복 체험, 1일간 행사로 개최, 한복 무상대여 프로젝트 추진

○ **한-베 음식경연대회** [11월 중 | 페이스북(Facebook), 하노이]

- 베트남 재료 활용해 한국식 퓨전 음식의 경연대회
- 11.13. 결선전, 장소 : 문화원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K-Pop 홍보 프로젝트**

[11월 중 | 문화원 페이스북(Facebook)]

- K-Pop 히트곡 선정과 수화로 커버 동영상 3건 제작, 송출

○ **한국동화 읽어주기, ‘엄마의 이야기’ 프로그램 운영**

[11월 중 | 하노이 소재 어린이집]

- 하노이 소재 4~5개 어린이집 선정해 영유아 대상 한국동화 읽어주기 운영

○ **오늘도 나의 사랑, 한국어 영상 제작과 확산**

[11월 중 | 문화원 페이스북(Facebook)]

- #4. 직장문화편 제작(1편, 2편) 편집

○ **한국문화원이 간다** [11월 중 | 문화원]

- #9. 국제부부-베트남편 어블드,
- #10. 국립민속박물관 편집
- #11. 박항서 감독 Khoa 통역관 편 촬영
- #12. 콘텐츠 회의

○ **2021 K-pop Lovers Festival** [11월 중 | 문화원]

- 베트남 전국 K-Pop 팬 대상으로 커버 공모전, 온·오프라인 진행
- 11월 중. 호치민 개최

○ **아오자이 홍보 캠페인 운영** [11월 중 | 문화원]

- 한국인 유학생과 베트남 유튜버 인플루언서와 공동으로 베트남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를 직접 제작과 체험하는 영상 제작, 송출

○ **나에게 한국어란 인터뷰 영상 제작과 확산** [11월 중 | 문화원]

- 한국어 학습자의 현지인들의 인터뷰 영상 제작, 한국어 학습의 동기부여 (총 12편)

○ **한글강좌 2기 정규과정** [11월 중 | 온·오프라인]

-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문화의 확산

○ **2021 베트남 출간 한국 도서 독후감 공모전** [11월 중 | 문화원]

- 한국 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  
- 11.1.6. 결과발표  
- 11월 말 시상식

○ **한-베 수교 30주년 로고 공모전** [11월 중 | 문화원]

- 2022년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상징하는 로고 공모전을 주베트남대사관과 주한베트남대사관이 공동 주최  
- 11.12까지 공모  
- 11월 중, 평가와 발표

○ **세종학당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11월 중 | 문화원]

- 베트남 내 22개 세종학당에 대한 소개자료 제작, 수강생과 교원들의 협력적 관계를 위한 온라인 골든벨 대회 운영

○ **K-Pop 아카데미** [11월 중 | 온·오프라인]

- 온라인을 통해 댄스와 보컬 강의 운영

○ **영화·드라마 속 한식 영상 시리즈** [11월 중 | 온라인]

- 영화와 드라마 속 한국 음식 조리법 영상 제작, 송출

○ **하롱대학교 한국문화 교양과목과 한국 동아리 개설** [11월 중 | 온라인]

- 한국어학과 학생 대상 한국문화 교양과목 운영(예쁜 한글 쓰기, K팝 댄스), 한국어학과 학생 대상 한국 동아리 개설 및 운영(부채춤)  
- 총 11회 강의(총 3과목, 수강생 20명 내외)

○ **베트남 현지 인기 한국 도서 김난도 작가와 베트남 독자들과의 온라인 북콘서트** [11.14. | 온라인]

- 베트남 현지 인기 한국 도서 작가들과 베트남 독자들과의 온라인 영상 만남 행사

○ **2021 베트남 전국 한국어 말하기대회 북부지역 본선 개최** [11월 중 | 문화원]

- 한국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전국 단위 한국어 말하기대회 개최, 남부지역 본선
- 참가분야 : 일반부(전공/대학교), 일반부(비전공/세종학당), 중·고등부(한국어 과목 운영학교)

## 태국

○ **케이팝 아카데미 댄스와 보컬 강좌** [11.01.~30. | 온라인]

○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11월 중 | 온라인]

○ **세종학당과 한국문화 강좌** [11월 중 | 온라인]

- BTS와 함께 배우는 한국어 특별강좌이며, 가야금과 단소 중급반 운영

○ **치앙마이 한국어교육기관 방문** [11.18.~19. | 치앙마이대학교, 치앙마이대학교 세종학당, 치앙마이 라차팻대학교]

- 주재국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치앙마이에 있는 한국어과 개설 대학과 세종학당 등에 방문해 한국어 학습 관련 요청 사항 논의 등 한국문화 체험 제공

## 필리핀

○ **전통문화가 있는 목요일** [11.04. | 문화원 공식 누리집]

- 한국 전통 무용의 종류 등 소개

○ **제2외국어 한국어 채택교 대상 한국 문화 특강** [11월 중 | 온라인 줌(ZOOM)]

- 제2외국어 한국어 채택학교이며, 한국 전통 춤과 음악에 대한 온라인 교육 진행

## 카자흐스탄

---

### ○ 가을학기 온라인 한식강좌 [11.01.~26. | 온라인]

- 한국과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주재국민을 대상으로 한식과 조리법 소개

### ○ 가을학기 온라인 한국어강좌 [11월 중 | 온라인]

- 주재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 진행

- 총 10개 반(세종한국어 1~4과정) 운영

## UAE

---

### ○ Hanbok & Dolls 한복인형전 [11.01.~30. | 문화원 아리랑홀]

- 한복으로 복색한 인형 40여 점 전시

### ○ 예술의전당 상영회 <정크, 크라운> [11.03. | 온라인]

### ○ 양국문화강좌 [11.01. | 온라인]

- 코리아 페스티벌 일환으로 온라인 행사 진행

### ○ 코리아페스티벌영화상영 [11.05.~06. | 아부다비 갤러리아몰 복스시네마]

-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 <극한직업> 상영

### ○ 2021 세종학당 특별 4학기 온라인 한국어 강좌 운영

### ○ 2021 태권도 강좌 운영

### ○ 2021 문화강좌 운영 - 한글 캘리그래피

### ○ 정기기획 전시 <한양 여인의 향취>

### ○ 뉴욕대 연계 서도밴드 온라인 콘서트 [11.12. | 온라인]

- 서도 밴드 초청 케이팝 온라인 콘서트 진행

## 호주

---

○ **한-호예술재단 미술 공모전** [11.05.~30. | 문화원]

- 호주 내 미술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 한-호 양국 간의 미술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

○ **정기 한국영화 무료 상영회** [11.18. | Palace Cinemas Central]

- 영화 <터널> 상영

## Vol.21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 모음

2021년 11월호

### 발행처

해외문화홍보원

[www.kocis.go.kr](http://www.kocis.go.kr)

### 발행일

2021년 11월 12일

### 발행인

박정렬

### 기획 및 편집 총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최경희, 이유림

[www.kofice.or.kr](http://www.kofice.or.kr)

### 외부 집필진

천정범 | 주남아공홍보관

심미랑 | 한국지식재산연구원(부연구위원/법학박사)

### 디자인

studio 213ho

[www.213ho.com](http://www.213ho.com)

ISSN 2713-9387

